



#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2017 회계연도 연례보고서  
2017년 9월 - 2018년 8월

TCS  
ANNUAL REPORT  
FY2017 |  
2017.9-2018.8 |

**FY2017**  
연례보고서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日中韓三国協力事務局  
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2010년 12월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3국 정부가 공동 서명한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에 근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FY2017 연례보고서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사무국에서 수행한 활동과 행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영문 보고서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 Annual Report FY2017』의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국문 번역본이 영어 원문과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 목 차

• 인사말	4
•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소개	6
• FY2017 하이라이트	10
<b>I.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b>	15
1. 정 무	16
2.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21
3. 사회·문화	36
◦ 한중일 3국 정부간 협의체	40
<b>II. 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b>	41
1. 정 무	42
2.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47
3. 사회·문화	51
4. 공동 사업	64
<b>III.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조정</b>	67
1. 지역협력기구 및 국제기구	68
2.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관	72
3. 지방정부	74
4. 언론 및 홍보	77
5. 학계·대학	80
<b>IV.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수행 및 출판</b>	83
• 한눈에 보는 FY2017 3국협력사무국 활동	90
• 영문약어	92

# 인사말

“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균형 잡힌 조정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



## 이종현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2017 회계연도는 한중일 협력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선 한중일 정상은 올해 5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2년 반 만에 만남을 갖고 정상회의 정례화의 중요성에 합의했습니다. 3국 정상들은 한중일 국민들의 일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실질적인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3국협력사무국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사무국의 역량구축 활동과 3국 정부간 협의체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를 지지하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동북아 평화의 시대를 열기위한 디딤돌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모멘텀은 2020년 여름 도쿄, 그리고 2022년 겨울 베이징으로 이어질 것이며 3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의 설립 7주년을 맞아 제4대 협의이사회가 새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한국, 일본, 중국이 차례로 2년씩 임기를 맡았습니다. 이제, 사무국이 또 다른 도약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역대 이사회가 이루어 온 성과를 기반으로, 제4대 협의이사회는 사무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3국 정상들이 강조했던 한중일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각급별 3국 정부간 협의체와 활동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은 외교, 경제, 재난 관리, 환경, 공중보건,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운영되는 정부간 협의체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난 20년의 3국 환경협력의 성과와 동북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망을 담은 『한중일 환경협력 20주년 1999~2018』 기

념책자를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2018년 5월 7년만에 재개된 한일중 ICT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3국간 정보통신기술 협력에 대한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3국협력사무국은 제11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승인된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 및 캠퍼스 아시아, 동아시아 문화도시(CCEA)와 같은 후속 사업들을 앞장서서 지원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간 협의체 지원 외에도, 사무국은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운영하고 한중일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올림픽 대회를 3국협력 증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사무국은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및 토크 콘서트 포럼을 개최하고, 올림픽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연구보고서 『올림픽 경제』를 한중일 3개 언어로 발간했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인구, 무역, 에너지, 환경, 기술, 방문인구, 자연 재해 등에 관한 3국의 최신 통계를 온라인 상에서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년 반에 걸친 편찬작업 끝에 출판된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TCVD)』은 3국의 국민들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인문학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3국 정부간 협의체와 협력사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국은 한국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2018년 6월 서울에 국제회의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동시통역 부스를 포함한 첨단장비를 구비한 국제회의장은 개관 이래 세미나, 행사, 전시회 등 사무국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9년 이래 한중일 3국은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11차례의 정상회의와 이와 별도로 개최된 3국 단독 정상회의를 7차례 개최했습니다. 더불어 21개의 장관급 회의를 포함한 정부간 협의체의 개수는 7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3국간 연간 방문객은 약 3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많은 초국경 이슈는 양자 협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국 관계의 부침(浮沈)과 무관하게 3국 협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은 단순히 양자관계의 조합을 넘어선 이웃으로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상호소통을 지속하는 지역협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 않습니다.

2017 회계연도 동안 우리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적인 변화와 도전들을 목격했습니다. 아직은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한다면 3국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제4대 협의이사회의 2년 임기 중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사무국은 한중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균형 잡힌 조정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선한 지역주의'에 기여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내적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중일 협력의 앞날을 위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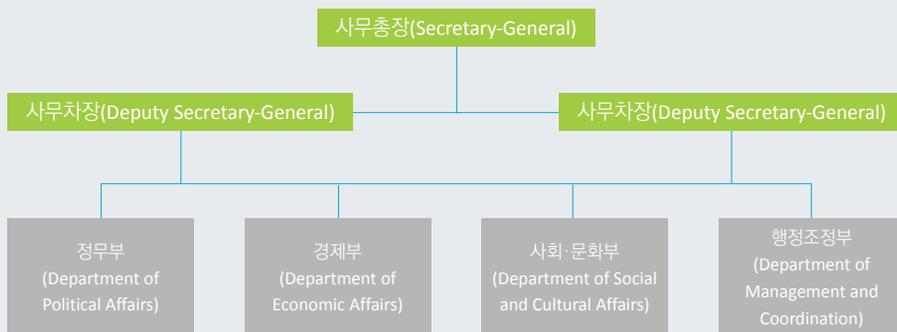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일본국(이하 '일본') 3국 정부가 공동으로 서명한 협정에 의거하여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되었습니다. 각국의 동등한 참여를 바탕으로 한중일 3국 정부가 매년 사무국 운영예산을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3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양한 부문과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는 3국 협력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3국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중일 협력이 앞으로도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요기능

-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 협력사업 발굴 및 촉진
-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조정
-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수행 및 출판

## 조직구조



## 협약이사회

협약이사회는 사무국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한중일 각국이 2년마다 윤번제로 임명하는 1명의 사무총장(SG)과 2명의 사무차장(DSGs)으로 구성됩니다.

### 1대 협약이사회 2011.9 - 2013.8

사무총장	 한국	신봉길
사무차장	 일본	마츠카와 루이(松川 るい)
사무차장	 중국	마오 닝(毛宁)

### 2대 협약이사회 2013.9 - 2015.8

사무총장	 일본	이와타니 시게오(岩谷 滋雄)
사무차장	 중국	천 평(陈峰)
사무차장	 한국	이종헌

### 3대 협약이사회 2015.9 - 2017.8

사무총장	 중국	양 허우란(杨厚兰)
사무차장	 한국	이종헌
사무차장	 일본	우메자와 아키마(梅澤 彰馬)

### 4대 협약이사회 2017.9 - 2019.8

사무총장	 한국	이종헌
사무차장	 일본	야마모토 야스시(山本 恭司)
사무차장	 중국	한 메이(韩梅)

### 정무부

- 외교
- 안보
- 역내이슈
- 국제이슈
- 재난방지·관리
- 싱크탱크 네트워크
- 공공외교

### 사회·문화부

- 문화
- 청소년교류
- 언론
- 교육
- 보건복지
- 관광
- 지방정부 교류
- 인사행정
- 스포츠

### 경제부

- 무역·투자
- 교통·물류
- 세관
- 지적재산권(IPR)
- 정보통신기술(ICT)
- 금융
- 과학기술
- 표준화
- 에너지
- 소비자정책
- 환경보호
- 농업
- 수자원
- 산림

### 행정조정부

- 기획·조정
- 대외홍보
- 인사
- 행정·법적지원
- 예산·회계
- 기록관리

## 부서

3국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PS)과 한중일 각국에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된 일반인력(GSS)으로 구성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 연혁

- 1999.11 **3국협력의 시작**  
제3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최초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개최 (필리핀·마닐라)
- 2008.12 **3국협력의 제도화**  
아세안+3 정상회의라는 기존틀에서 탈피하여 제1차 한일중 별도 정상회의 개최 (일본·후쿠오카)
- 2009.10 **3국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인**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 시, 한중일 3국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인 (중국·베이징)
- 2010.05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채택 (한국·제주)
- 2010.12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한중일 3국 정부간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서명 (한국·서울)
- 2011.09 **3국협력사무국 설립**  
3국협력사무국 개소식 (한국·서울)
- 2012.05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중국·베이징)
- 2013.10 **제16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브루나이·반다르세리베가완)
- 2014.11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미얀마·네피도)
- 2015.11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한국·서울)  
**제18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2016.09 **3국협력사무국 설립 5주년 기념식** (한국·서울)  
**제19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라오스·비엔티안)
- 2017.11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필리핀·마닐라)
- 2018.05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일본·도쿄)
- 2018.06 **3국협력사무국 국제회의장 신설**  
TCS 국제회의장 제막식 (한국·서울)



1

#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The Third Trilateral Summit Meeting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eju, Korea | May 29-30, 2010



2

- ①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 시 「3국협력사무국 설립에 관한 각서」 채택 (2010년 5월)
- ② 3국협력사무국 개소식 (2011년 9월)
- ③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참석 (2018년 5월)
- ④ TCS 국제회의장 제막식 (2018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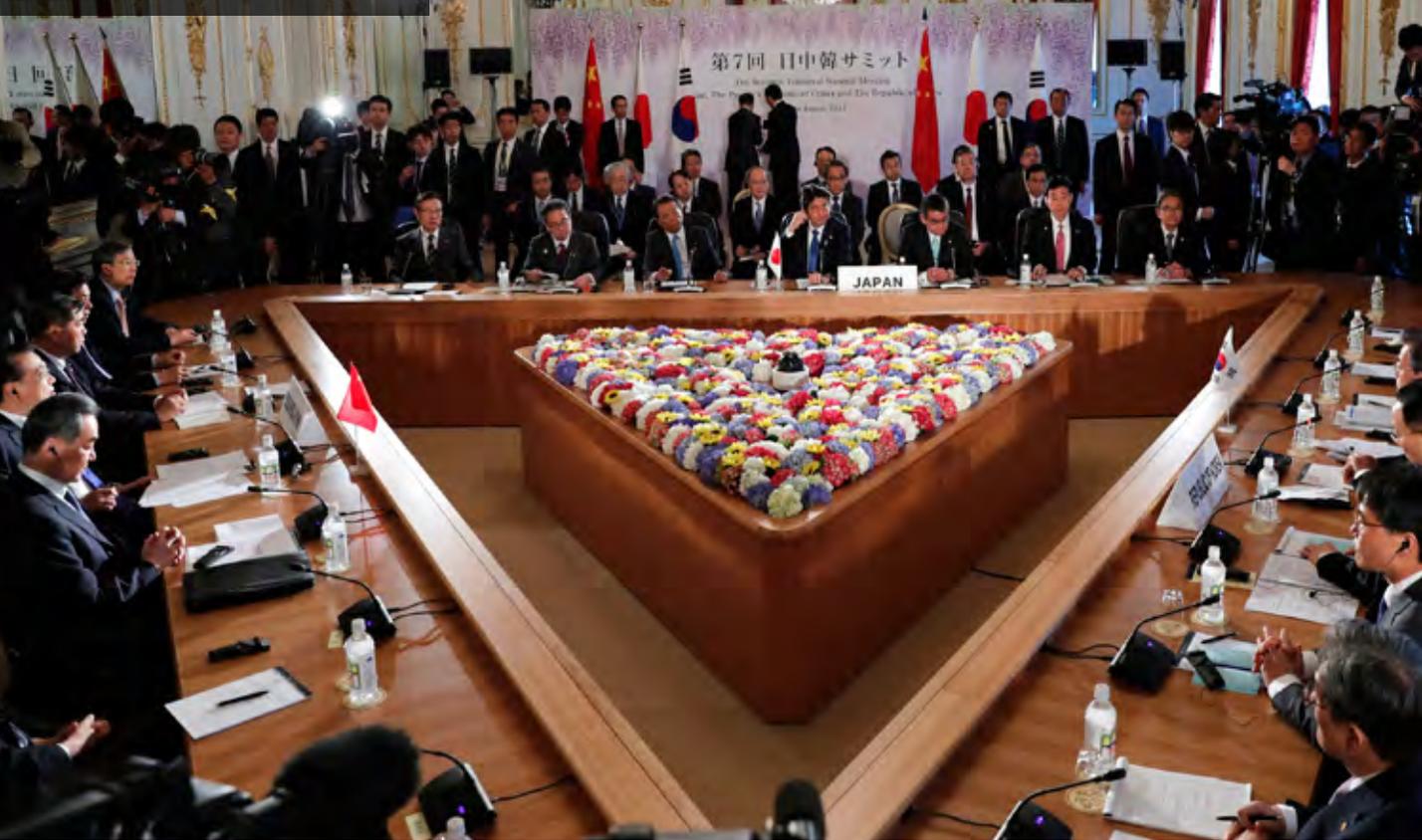
3



4



# FY2017 하이라이트



## p.17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2018년 5월 9일,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리 커창 중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종현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과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는 특별 성명인 「한일중 정상회의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p.64 **2018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2018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IFTC)이 “3국 협력의 새로운 장 — 지난 10년, 다가올 10년”이라는 주제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 최초로 별도의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IFTC는 정상회의의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 간 3국 협력의 성과를 반추하고, 향후 10년간 협력을 이끌어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p.57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및 토크 콘서트 포럼**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및 토크 콘서트 포럼은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위한 후속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창, 도쿄, 베이징에서 연달아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3국 정상들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토크 콘서트와 패널 토론에서는 한중일 국가대표 선수단과 올림픽·패럴림픽 관련 정부관료 및 전문가들이 평창 2018 올림픽의 성과와 교훈, 그리고 올림픽 기간에 있었던 3국간 협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3국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진전에서는 한중일 국가대표 선수단과 응원단의 경쟁과 협동을 보여주는 83장의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2018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신설된 TCS 국제회의장



**p.57 TCS 국제회의장 제막식**

3국협력사무국 국제회의장은 일반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더 밀접하게 소통하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사무국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신설되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위한 동시통역 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박람회, 공연, 강연, 세미나, 토크콘서트 등을 위한 다양한 배치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p.58 2018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TJEP)은 3국의 언론인들이 만나 한중일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건설적인 언론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열흘간의 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4년에 시작된 3국협력사무국의 대표 사업입니다. 2018년 5회째를 맞이한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은 “향후 10년의 3국 협력”을 주제로 6월 13일부터 23일까지 중국, 일본, 한국(방문 국가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중일 기자 9명이 대표단에 참가했습니다.



p.86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주년 기념책자 『한중일 환경협력 20주년 1999~2018』**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20주년을 기념하고, 환경장관회의와 동북아 3국의 환경협력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 『한중일 환경협력 20주년 1999~2018』 기념책자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4개 언어로 발간했습니다. 이 기념책자는 환경장관회의와 지난 20년 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동북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3국의 향후 협력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p.49 **제6차 한중일 비즈니스 세미나 및 교류회**

3국협력사무국은 2018년 7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초국경 스타트업을 위한 공공-민간 교류”라는 주제로 제6차 한중일 비즈니스 세미나 및 교류회(TBNR)를 개최했습니다. 경제협회, 공공기관, 대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 3국간 초국경 스타트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참가자와 후원기관들은 초국경 스타트업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중일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지속적인 함양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60 **2018 청년대사 프로그램**

2018 청년대사 프로그램(YAP)이 7월부터 8월까지 서울과 제주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국협력사무국에서 매년 주관하는 학생 교류사업으로 미래의 한중일 리더들이 3국 협력을 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공동체 의식과 우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3국에서 모인 20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 p.85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3국협력사무국은 3국 관련 최신 통계정보를 일반인에게 이해가 용이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데이터 시각화 툴을 통하여 경제, 에너지·환경, 과학·기술, 방문객수, 인구, 자연재해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최신 동향에 관한 주요 통계수치를 제공합니다.

## p.86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TCVD)』은 2014년 제9회 한중일 30인 회(NATF)에서 채택한 「한중일 공통 상용 808 한자표」의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이 어휘집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658개의 공통 어휘 및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전문가로 구성된 편찬위원회의 1년 반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2018년 8월 공통 한자어 어휘집 초판이 성공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베이징과 교토에서도 홍보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중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3국협력사무국은 유관 기관에 어휘집을 배포하고 어휘집의 내용을 꾸준히 다듬어 갈 계획입니다.

## p.60 한중일 삼국일칠 옷칠예술 아티스트토크 & 전시회

3국협력사무국은 예술 분야에서 3국간 상호 교류의 역사와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중일 삼국일칠 옷칠예술 아티스트토크 &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개 전시회에서는 한중일 3국에서 수집한 회화 14점과 조각 10점을 포함하여 총 24점의 옷칠예술 작품이 공개되었고, 한중일 옷칠 작가들의 아티스트토크가 열렸습니다. 2주간 진행된 전시에는 300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개회식에서는 한중일 문화 체험행사와 3국의 전통음악 합주공연이 함께 열렸습니다.

## p.45 지역 협력에 관한 지역간 대화: '3+1' 협력체제와 한중일 협력 전망

지역 협력에 관한 지역간 대화는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후속사업으로 2018년 8월에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주한 EU 대표부, APEC 사무국에서 온 참가자들은 제7차 정상회의에서 소개된 새로운 개념인 '3+1' 협력체제의 의미에 대한 각자의 이해와 분석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가능한 접근법과 적용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한중일 삼국일칠 옷칠예술 아티스트토크 & 전시회



# I

## 정부간 협의체 운영 및 관리 지원

“3국 정상회의, 3국 외교장관회의, 3자 위원회 및 다른 장관급 회의, 그리고 3국 고위급회의와 같은 당사자 간 3국 협의체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요 협의체에 사무국 대표를 참석하도록 조치”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제3조 제1항 가호



# 1. 정무

## 외무

3국 외교부는 다양한 직급별 협의체를 위한 의제와 결과물을 준비하고, 관련 분야의 정보와 협력의 진전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타 부처와 소통하는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3국의 외교부는 3국협력의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며, 다양한 역내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협의를 촉진하고, 정상회담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합니다.

사무국은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3조 1항 가호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사무국은 3국의 외교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일련의 준비 회의에 참여하며, 회담 결과물의 이행 상황을 추적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관련 부처와 협력 하에 새로운 협력 계획을 촉진합니다. 이와 함께 사무국은 3국 협력의 제도화와 '협력의 습관'을 강화하기 위한 3국 협력 프로세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

##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

이종현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7년 1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ASEAN Plus Three (APT) Summit]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APT 협력 및 역내 및 국제사회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정상들은 APT 협력을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귀중한 협의체로 인식하며 앞으로도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아세안사무국과 3국협력사무국의 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세안+3 20주년 기념 마닐라 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아세안+3 협력 체제는 1997년 12월 아세안, 한국, 중국, 일본 정상들이 만나 비공식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세안+3 정상회의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등 여러 영역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각급별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해 1999년 제도화되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7년 11월 14일
- 장 소: 필리핀·마닐라
- 참가자:  아세안 회원국 정상  
   일본, 중국, 한국 3국 정상
- 결 과:
  - 「아세안+3 정상회의 20주년 기념 의장 성명」
  - 「아세안+3 20주년 기념 마닐라 선언」

##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종현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Trilateral Summit)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 커창 중국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3국 정상회의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간 3국협력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정상회의 정례화의 중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정상들은 2015년 11월 이후 3국 협의체 목록을 부록으로 포함한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정상들은 선언문을 통해 3국 협력 진전에 있어 3국협력사무국의 역할을 재확인했으며, 사무국의 역량 강화와 3국 간 모든 협의체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지지했습니다. 정상들은 또한 3국협력기금(Trilateral Cooperation Fund: TCF)의 출범이 3국협력 사업의 발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70여 개의 정부간 협의체 및 3국과 동북아지역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탱하는 중요 협의체입니다. 현재 3국 정상회의 체제는 3국 정상이 2008년 아세안+3 협력체제와 별도로 최초의 회담을 개최하면서 자리잡았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3국 정상회의의 발족은 동북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의 정치적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3국 정상회의는 기존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모멘텀을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5월 9일
- 장 소:** 일본·도쿄
- 참가자:**  일본, 중국, 한국 3국 정상
- 결 과:**
  -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
  - 「한일중 정상회의의 ‘2018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별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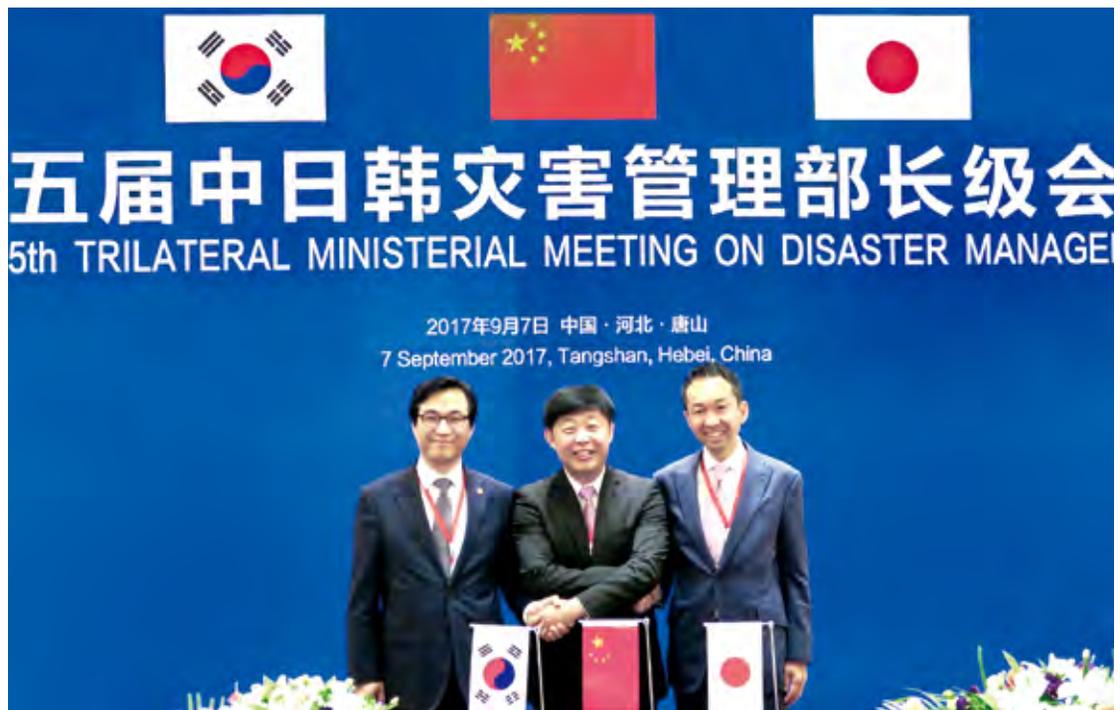
## 재난 관리

역내 및 국제 협력을 통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바탕으로 각급별 재난위험 감소 노력 촉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국가로서 한중일 3국은 회복력있는 사회와 보다 안전한 환경조성을 목표로 상호간 효율적인 재난대응과 위험감소 조치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러한 인식과 공동 책임감이 강화되어, 같은 해 개최된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재난 관리를 위한 협력을 증대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3국협력사무국은 재난관리 영역에서의 지역 협력을 위해 3국의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간의 정책공유와 훈련을 위한 플랫폼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제5차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

3국협력사무국은 2017년 9월 7일 중국 당산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on Disaster Management)에 참석했습니다. 3국 대표단은 각국에서의 재난관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3국간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재난 위험과 손실을 최소화하여 3국과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한중일 공동의 행동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면서,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 성명은 (1) 「재난 경감을 위한 센다이강령 2015-2030 (SFDRR)」의 지속적인 이행 촉진과 (2) 재난위험 감소 및 완화 역량강화를 위한 3국간 재난관리 협력 증진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3국협력사무국은 지난 회의 이후 이 분야에서의 활동 내역을 3국 대표들에게 보고하고, 이번 회의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했습니다.



2009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된 재난관리 기관장회의는 재난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지난 활동과 현재 당면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9월 7일  
**장 소:** 중국·탕산  
**참가자:**  중국 민정부(MCA)  
 한국 행정안전부(MOIS)  
 일본 내각부(CAO)  
**결 과:**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 제10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제10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ilateral Top Regulators Meeting (TRM) on Nuclear Safety]가 일본 도쿄에서 2017년 12월 5일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3국 대표단은 원자력안전 활동의 최신 동향과 「원자력안전협약(CNS)」에 대한 각국의 과제와 대응에 관해 발표하고, 합동방재 훈련(JED)의 성과와 TRM 체제 하에 설립된 3개의 실무회의의 성과를 검토했습니다. 대표단은 또한 동경전력(TEPCO)의 후쿠시마다이치 원자력 발전소, 탄소 분리 및 안전 문화를 3가지 특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다음날에는 제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플러스(TRM Plus)가 개최되었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한중일의 원자력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지진 대응방법’,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원자력 발전소 현장 점검’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008년 9월 시작된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 규제 및 원자력안전 지역협력 강화에 관한 쟁점과 기술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 협의체 하에서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플러스, 합동방재훈련 및 인적자원개발/교육훈련 워킹그룹(WGHRD), 온라인정보교류시스템 워킹그룹(WGOIS), 비상대응능력제고 워킹그룹(WGEP) 등 3개의 실무회의가 주최됩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2월 5~6일  
**장 소:** 일본·도쿄  
**참가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중국 환경보호부 국가핵안전국 원자력 안전규제부(NNSA/MEP)

## 2.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 무역과 투자

한중일 3국은 세계 경제의 주요 엔진으로서 국제 무대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무역 관련부처 간 협의체는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 의제와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창출하여 유익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2012년 3국 정부는 3국간 최초의 경제협정인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2013년 이후 3국은 2003-2009 민간공동연구 및 2010-2011 산관학 공동연구를 거쳐 한중일 FTA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3국 경제무역 관련 부처와 협의하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합의된 ‘공급망연결(SCC) 향상을 위한 3국협력 공동사업’ 및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를 포함한 다양한 후속사업을 이행하며 이 분야의 3국 협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3국협력사무국은 아세안+3 협력 메커니즘 하에서 3국간 경제사업을 보다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무국은 제18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을 토대로 역내 통합을 더욱 강화하고 아세안+3 협력 사업과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기 위해 아세안 사무국 및 기타 관련기관과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제3차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 실무그룹회의

전자상거래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가 커짐에 따라 2016년 10월 개최된 제11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가 채택되었으며, 3국협력 사무국은 이 사업을 주관하고 조정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공동연구의 목적은 3국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특성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단일 디지털 시장 조성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서울과 베이징에서 1차 및 2차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 실무그룹 회의(Trilateral Working Group Meeting for the Joint Study “Trilateral Cooperation on E-Commerce”)를 개최했으며, 3국의 경제무역 부처 공무원과 지정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참석하여 연구 진행상황을 논의했습니다. 2017년 9월 12일 도쿄에서 열린 제3차 실무회의에서는 사무국의 주재 하에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주제로 적극적인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공동연구의 결과는 다음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발표될 계획입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9월 12일

장 소: 일본·도쿄

참가자: 일본 경제산업성(METI),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한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 상무부(MOFCOM), 중국정보통신기술연구원(CAICT)



## 제16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3국협력사무국은 규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KEI)의 초청으로 2017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16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Yellow Sea Rim Economic and Technological Conference)에 국제기구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한 메이 사무차장은 본회의에서 사무국이 국제기구로서 한중일 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3국 협력에 기여해온 바를 소개했습니다. 3국 참가자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무역, 투자 및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고 고령화, 청년실업 등의 공통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중일 정부, 경제협회, 기업, 대학, 연구소를 초청하여 3국간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협력 협의체입니다. 2000년 제4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발의되어 2001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3국간 무역 및 투자 확대, 기술 이전 및 인력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1월 29~30일

**장 소:** 일본·카고시마

**참가자:**

- 일본 경제산업성 규슈경제산업국, 규슈경제연합회, 규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KEI)
-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MOTIE), 한일경제협회(KJEA)
- 중국 상무부(MOFCOM)



## 지적재산권(IPR)

전세계 특허출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의 높은 출원률을 반영하여 글로벌 지적재산권(IP) 시스템 개발을 위한 3국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와 같은 장관급 회의 외에도, 자동화 및 특허심사에 대한 합동전문가회의 및 3국 지적재산교육센터장회의와 같은 다양한 실무자급 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3국의 관련기관은 3국의 IP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새로운 한중일 IP 협력 웹사이트인 TRIPO를 개설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4년부터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한중일 지식재산 유저 심포지엄과 같은 협력체제를 지원해왔습니다.

### 제17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제17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TRIPO Heads Meeting between KIPO, CNIPA and JPO)가 2017년 12월 6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국 청장들은 각국의 현황을 설명하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을 위한 다양한 주제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전세계 특허출원에서 한중일 3국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과 점차 증가하는 특허출원의 추이를 고려하여, 3국 특허청장들은 한중일 특허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지적재산권 분야를 고려한 새로운 협력방향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3국 특허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3국 지적재산권 협력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새로운 엠블럼이 채택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는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일본 특허청(JPO)의 장들이 참석하여 지적재산권, 의장권, 상표권에 관한 3국 협력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매년 3국에서 순번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2월 6일

**장 소:** 한국·제주도

**참가자:**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구 '국가지식재산권국(SIPO)']

 일본 특허청(JPO)

## 제5회 한중일 지적재산 유저 심포지엄

제17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이어 2017년 12월 7일에는 제5회 한중일 지적재산 유저 심포지엄(TRIPO User Symposium, 구 '한중일 IP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이 심포지엄에 매년 참가해 왔으며, 이번 회계연도에는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한중일 IPR 전략”이라는 주제로 개회사를 전달했습니다. 야마모토 사무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한중일 각국의 행정 및 사법기관의 최신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7년 12월 7일
- 장 소: 한국·제주
- 참가자: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  
 일본 특허청(JPO)
- 주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한중일 IPR 전략”



## 정보통신기술(ICT)

전세계적인 IT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한중일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관련 협력을 위한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한일중 ICT 장관회의, 국장급 회의 및 기타 실무자급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3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동북아 OSS 활성화 포럼도 개최됩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련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간 사무국이 다른 경제분야의 여러 협의체에 기여해 온 성과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제6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

2011년 제5차 회의 이후 7년간 중단되었던 한일중 ICT 장관회의(Trilateral ICT Ministers' Meeting)가 재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처음으로 이 회의에 참석해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이 축사를 하였습니다. 3국의 장관들은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고령화, 올림픽 주최 등 한중일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와 기회에 대처하기 위한 ICT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ICT 분야의 3국 협력 증진을 승인했던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돌아보면서, 3국의 장관들은 향후 협력강화를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장관회의에 뒤이어 한중일 ICT 기업 교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5G,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8K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진보적인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한일중 ICT 장관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IT협력을 강화하고 3국 협력을 통해 IT기술 및 표준화 영역에서 첨단 IT기술 및 서비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2000년 제2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2002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위원회의 기간 중에 제1차 장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11년 1월 이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일중 ICT 장관회의 정례화에 합의하였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5월 28일
- 장 소: 일본·도쿄
- 참가자:
  - 일본 총무성(MIC)
  -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
  - ☐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 환경 보호

동북아시아는 지난 수십 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동시에 환경오염과 생태계 악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습니다. 동북아 지역이 직면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한중일 3국은 1999년 이래 환경장관회의 등 고위급 협의체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은 「환경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9개의 우선협력분야에서 공통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7차 정상회의에서는 환경장관회의 체제를 통한 3국의 공동 노력을 지원하고 촉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환경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합니다. 사무국은 환경장관회의의 관련 협의체에 행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후속사업을 이행하며, 9개 우선협력분야의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수행함으로써 환경장관회의의 협의체에 의미있고 실질적인 기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8년 6월 23~24일 양일간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TEMM20)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3국의 환경장관들은 최신 국내 정책을 소개하고, 역대 및 국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3국간 협의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체계적으로 제도화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하며, 3국 장관들은 1999년 이 협의체의 설립 이후 3국 환경협력의 발전상황과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과 향후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을 보다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회의기간 중 청년포럼 및 한중일 환경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포함한 다양한 부대행사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포럼에서 환경보호 홍보 활동을 기획·운영했습니다. 또한, 과거 성과를 기념하고 환경친화적인 동북아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중-아세안 환경보호 협력센터와 함께 『한중일 환경협력 20주년 1999~2018』 기념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기념책자는 제20차 환경장관회의의 주요 결과물 중 하나로 장관회의의 중에 배포되었습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는 현재 21개의 3국간 장관급 협의체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제도화된 협의체입니다. 동북아 정세나 각국의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1999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3국은 이 협의체를 통해 환경 관리를 촉진하고 지역환경 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환경개선에 공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TCS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일 자:** 2018년 6월 23~24일  
**장 소:** 중국·쑤저우  
**참가자:**  중국 생태환경부[MEE, 구 '환경보호부(MEP)']  
 일본 환경성(MOE)  
 한국 환경부(ME)  
**결 과:**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합의문」

##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후속실무회의

2017년 12월 22일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후속실무회의(Post-TEMM19 Working Level Meeting: WLM)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과장 및 실무진들은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TJAP)(2015~2019)」과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공동합의문」의 진행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2018년 중국에서 개최될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위한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3국으로 하여금 그간의 성과를 알리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회의 20주년을 축하하고 미래 환경협력의 청사진을 세우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3국협력사무국 장은영 경제부장은 이 후속실무회의에서 대중인식 제고를 위한 사무국의 사업 성과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2월 22일  
**장 소:** 한국·서울  
**참가자:**  한국 환경부(ME)  
 중국 환경보호부(MEP)  
 일본 환경성(MOE)

##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국장급 및 실무자급 회의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8년 3월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실무자급 회의(Pre-TEMM20 Working Level Meeting: WLM)에 참석했습니다. 3국의 실무진들은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안건 및 실행계획, 공동합의문,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실행계획(2015~2019)」의 진행상황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2018년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주년을 맞아 회의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한 한중일 환경협력의 회고 및 전망과 20주년 기념책자를 포함한 사업 기획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이 20주년 기념책자의 발간을 담당하였습니다.

2018년 5월 30일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국장급 회의(Directors-General Meeting (DGM) for TEMM20)에 참석했습니다. 3국의 국장들은 회의 준비상황, 공동 합의문 초안, 한중일 환경협력의 회고 및 전망, 20주년 기념책

자 및 향후 협력사업에 관해 보고받았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은 3국 간 환경협력 협의체에 대한 사무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3국 환경국장들은 성공적인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최를 위한 상호지원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날 치러진 실무자급 회의(WLM)에서는 3국의 실무진들과 3국협력사무국이 관련 이슈에 관해 전일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개요

###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실무자급 회의

일 자: 2018년 3월 28일

장 소: 중국·베이징

참가자:  중국 생태환경부(MEE)  
 일본 환경성(MOE)  
 한국 환경부(ME)

###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국장급 회의

일 자: 2018년 5월 30일

장 소: 중국·쑤저우

참가자:  중국 생태환경부(MEE)  
 일본 환경성(MOE)  
 한국 환경부(ME)



##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청년포럼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청년포럼(Youth Forum)은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중 개최된 4개의 하위포럼 중 하나입니다. “공동의 미래를 위한 기여: 녹색 미래를 향한 행진에 일반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한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이 청년포럼의 목표는 일반 대중에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홍보하고, 환경 보호와 협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중국 생태환경부 홍보교육센터(CEEC)와 협력 하에 3국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일반인들에게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성과를 홍보하고 환경 분야에서 한중일 향후 협력을 그리는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호작용형 전시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2018년 6월 22일 개최된 청년포럼은 한중일 3국협력과 3국협력사무국의 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청소년 대표들은 팀을 나누어 중국 쑤저우 지역 주민을 만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23일에는 전날 활동에서 얻은 교훈과 긴급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청년들의 창의력과 혁신에 감사를 표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청년들의 커다란 잠재력을 강조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6월 22~23일
- 장 소: 중국·쑤저우
- 주 최: 중국 생태환경부 홍보교육센터(CEEC)
- 참가자: 한중일 청년 대표들 15명,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담당자 및 참관인
- 주 제: “공동의 미래를 위한 기여: 녹색 미래를 향한 행진에 일반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한 청소년의 역할”



## 보건·복지

교통인프라의 발전으로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에서 지역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초국경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보건복지 관련 지식과 우수사례 공유, 효율적인 질병예방 및 퇴치를 위한 범지역적 체제 개발, 동북아 지역에서의 건강한 생활양식의 홍보 등 3국간에 수많은 잠재적인 협력분야가 존재합니다.

3국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에서의 협력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유행성 인플루엔자와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에 대한 협력각서(MOC) 및 공동실천계획(JAP) 등 공통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3년 최초로 보건장관회의에 참여한 이후, 이 분야에서의 3국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3국의 관련부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제10차 보건장관회의(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THMM)가 2017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중국 지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리 빈(Li Bin)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이 주재하였으며, 카토 카츠노부(KATO Katsunobu)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 박능후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 신영수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WHO-WPRO) 사무처장이 참여했습니다. 한 메이 3국협력사무국 사무차장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3국의 보건장관들은 3국간 보건 협의체의 현황을 검토하고 (1) 만성질환의 예방 및 통제, (2) 건강한 노후, (3)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통제, (4) 보건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5) 전통의학 등 분야에서 3국 협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1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10주년 기념 책자』를 편찬하여 3국 장관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는 보건과 의학분야에서 3국 공통의 과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3국은 이 협의체를 통하여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 '한중일 고령화회담'과 같은 다양한 후속사업을 개발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1월 11~12일

장 소: 중국·지난

참가자: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일본 후생노동성(MHLW)

 한국 보건복지부(MOHW)

결 과: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 산림

2014년 이래 한중일 3국 산림 관련 부처들은 국장급 회의를 통해 산림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3국은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와 개발을 목표로 산림테라피, 산림치유, 목재무역, 종자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사업을 이행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협의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제1차 국장급 회의 때부터 참관인의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회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한중일 산림용어집, 한중일 산림협의체 홈페이지와 같은 후속사업의 촉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5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회의

2018년 5월 31일 제5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회의(Trilateral DG Level Meeting)가 한국 영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 단도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부처와 함께 3국간 산림 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미래 안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3국의 산림 국장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유림 관리, 종자 보존, 산림 치료 등을 포함한 특정 안전에 관한 3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3국 협력사무국 야마모토 사무차장은 축사를 통해 제5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고 사무국은 이 분야 협의체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산림용어집 발간 공동사업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한중일 산림협의체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획안을 제안했습니다.

한중일 산림협력 국장급 회의는 3국의 산림 기관의 대표들이 주최하며, 주변국 간의 산림 협력을 도모하고, 국제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는 회의입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5월 31일
- 장 소: 한국·영주
- 참가자:  한국 산림청(KFS)  
 일본 임야청(FA)  
 중국 국가임업초원국(NFGA)



## 수자원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긴밀한 3국 협력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2012년 수자원 분야에서 3국간 협의체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3국 정부는 3년마다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3국간 정책 개발과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3국의 성과를 공유하여 수자원 보호에 앞장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수자원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장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3국 협력을 촉진하고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협의체의 후속 사업들을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3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

제3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on Water Resources)가 제8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3년마다 개최되며 2018년에는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이행 및 경험의 공유”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3국 수자원 장관들은 자국의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한중일 3국 및 동북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수자원 분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의 조인식은 3국협력사무국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이 진행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장관회의를 계기로 수자원 전문가 대화를 주최하였습니다. 3명의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와 연계지어 한중일의 수자원 관리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수자원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3국 수자원 장관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유사한 형식의 토론회를 주최할 계획입니다.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는 2009년 개최된 제5차 세계물포럼에서 3국 장관들이 채택한 「한중일 수자원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에 따라 2012년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장관회의는 3년을 주기로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개최되며, 정보와 경험 공유를 통해 수자원 정책 혁신과 수자원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3월 19일
- 장 소: 브라질·브라질리아
- 참 가 자:  일본 국토교통성(MLIT)  
 중국 수리부(MWR)  
 한국 국토교통부(MOLIT)
- 결 과: 「제3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 공동 선언문」
- 부대행사: 수자원 전문가 대화



## 제3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 준비 과장급 회의

3국협력사무국은 제3차 아시아태평양 수자원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 준비 과장급 회의(Director-level Meeting for the 3rd Ministerial Meeting on Water Resources)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실무급 관계자들이 회의 주제, 공동 선언문 초안을 위한 조정작업 등을 포함하여 장관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논의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장은영 경제부장은 다른 협의체에서 진행된 우수한 후속 사업들을 소개하고,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수자원 장관회의를 위한 후속 사업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2월 11일

장 소: 미얀마·양곤

참가자:  일본 국토교통성(MLIT)

 중국 수리부(MWR)

 한국 국토교통부(MOLIT)



## 교통·물류

3국은 교통·물류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오랜 협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국은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의 체제 하에서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실무자급 회의, 동북아 항만심포지엄,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 네트워크(NEAL-NET)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2년 제4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에 최초로 참석한 이후 적극적으로 이 협의체에 참여해 왔으며, 협력사업을 발굴·이행함으로써 한중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CJK Ministerial Conference on Transport and Logistics)가 2018년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장급 준비회의는 7월 17일에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이종현 사무총장과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사무국 대표단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종현 사무총장은 3국 협력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교통·물류 협력의 중요성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사무국이 3국 간의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개발한 한중일 교통·물류 협의체 온라인 홈페이지를 포함하여, 3국간 교통·물류 협의체를 위한 3국협력사무국의 역할과 기여를 강조했습니다.

3국의 대표들은 회의에서 (1)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2) 환경 친화적 물류 구축, (3)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 달성, (4) 3국의 지역 연계성 촉진 이니셔티브를 위한 프로젝트 및 정책 협력 강화, (5) 운송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공동노력 등 3국간 교통·물류 협력의 5개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5대 목표 아래 새롭게 설정된 11개의 실천과제를 검토했습니다.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는 2006년에 설립되어 막힘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 친화적 물류 구축, 물류보안과 물류효율화의 조화 달성이라는 한중일 교통·물류 협력의 3대 목표를 위해 전념하고 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8년 7월 18일

**장 소:** 한국·서울

**참가자:**  한국 해양수산부(MOF)

 일본 국토교통성(MLIT)

 중국 교통운수부(MOT)



### 3. 사회·문화

#### 문화

한중일 3국은 공통의 문화적 뿌리를 공유하며 풍부한 역사를 바탕으로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전통문화는 3국의 귀중한 지적 재산이자 정신적 토대이며,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의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문화의 가치와 고유의 문화적 전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3국 정부는 2007년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설립하고 문화를 매개로 평화로운 공존,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한일중 문화콘텐츠산업 포럼,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와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장관회의 하에서 이행되는 주요 후속사업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제10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제10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Trilateral Culture Ministers' Meeting: TCMM)가 2018년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 메이 사무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3년부터 이 회의에 참석해 왔으며,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포함한 주요 후속사업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3국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문화·예술', '문화재' 및 '문화 산업'이 한중일 문화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8월 29~31일
- 장 소: 중국·하얼빈
- 참가자:  중국 문화여유부(MCT)  
 한국 문화체육관광부(MCST)  
 일본 문부과학성(MEXT)
- 결 과: 「하얼빈선언문」



## 동아시아 문화도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Culture City of East Asia: CCEA)은 한중일 도시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4년에 시작된 3국 협력사업입니다. 매년 선정되는 3개의 도시들은 고유 전통과 현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3국간 각종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3국협력사무국은 한국 광주에서 개최된 2017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포럼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그 가능성을 향해”라는 주제로 열린 이 포럼에는 201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던 한국의 광주, 중국의 취안저우, 일본의 요코하마의 대표들과 2015년, 2016년 한국의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되었던 청주와 제주에서 온 대표들이 참석하여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의 향후 발전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외에도 200명 이상의 지역문화 교류협력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보다 넓은 범위의 3국 협력과 세계적인 문화수도사업의 측면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국의 부산, 중국 하얼빈, 일본의 가나자와가 선정된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다양한 형식을 통해 지원했으며, 2018년 1월 4일부터 7일, 4월 12일부터 13일 까지 각각 중국 하얼빈과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개막식을 포함한 여러 주요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 개요

일 자: 연중

참가자:  한국·부산  중국·하얼빈  일본·가나자와





## 교육·청소년 교류

한중일 협력의 미래는 3국의 청년들에게 달려 있으며, 동북아 공동체는 국제적 시각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가진 젊은 세대들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3국 협력을 위한 차세대 리더들을 교육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한중일 정부는 지역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수년간 교육 협력과 청소년 교류를 촉진해 왔습니다. 일례로, 유럽의 에라스무스(ERASMUS)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캠퍼스아시아(CAMPUS Asia) 사업은 3국 대학생 간의 교류를 장려하고 동아시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개설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청소년 간의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목표로 캠퍼스아시아 사업, 한일중 3국 청년모의정상회의,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 등 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국 교육부 및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정부 주도 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년대사 프로그램과 같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들을 직접 주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3국 미래 지도자들의 공동체 의식과 3국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Trilateral Education Minister's Meeting: TEDMM)가 2018년 3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하야시 요시마사(HAYASHI Yoshimasa) 일본 문부과학대신의 주재 하에, 중국의 천 바오성(CHEN Baosheng) 교육부장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 3국협력사무국 한 메이 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3국 장관들은 2016년 제1차 교육장관회의에서 채택된 「3국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서울 선언」의 성과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교육장관들은 (1) 3국간 학생교류 확대 촉진, (2) 캠퍼스아시아 사업과 한중일 상호학위인정 공동연구사업 개발을 통한 고등교육 협력 강화, 그리고 (3)



유네스코(UNESCO), 아세안+3, 한일중 정상회의,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등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3국협력사무국을 사업 담당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교육 분야에서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개최된 제1회 교육장관회의에서 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3국 청소년간 상호이해 증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교류사업 신설에 합의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8년 3월 21일  
**개 최:** 일본·도쿄  
**참가자:** 한중일 3국 교육부  
**의 제:** 한중일 교육 협력  
**결 과:**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공동성명서」

## 제6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제6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Trilateral Committee for Promot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Universities)가 한국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관 하에 2017년 11월 2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한 메이 사무차장은 주최기관인 교육부의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대학 및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6명의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의 대표기관들은 한국 교육부와 일본 문부과학성, 주한 중국대사관, 중국 교육부 학력학위인증센터(CDGC), 중국 교육부 고등교육평가원(HEEC), 일본의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QE), 한국대학교육협의회(KCUE), 캠퍼스아시아 사업 참여 대학, 한중일 기업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캠퍼스아시아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장, 사업의 질 확보와 모니터링, 학생교류의 활성화와 역량강화에 유익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는 제2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설립되었습니다. 2010년 일본 도쿄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후 한중일 3국에서 순환제로 개최되었으며, 캠퍼스아시아 사업의 준비, 이행, 검토, 확장 및 대학의 질보장 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1월 23일  
**개 최:** 한국·서울  
**참가자:** 3국 교육부 대표, 캠퍼스아시아 사업 공동모니터링위원, 캠퍼스아시아 사업 참가 대학 대표단  
**의 제:** 캠퍼스아시아 사업의 확장과 모니터링, 학생교류 활성화  
**결 과:** 「제6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합의문」

# 한중일 3국 정부간 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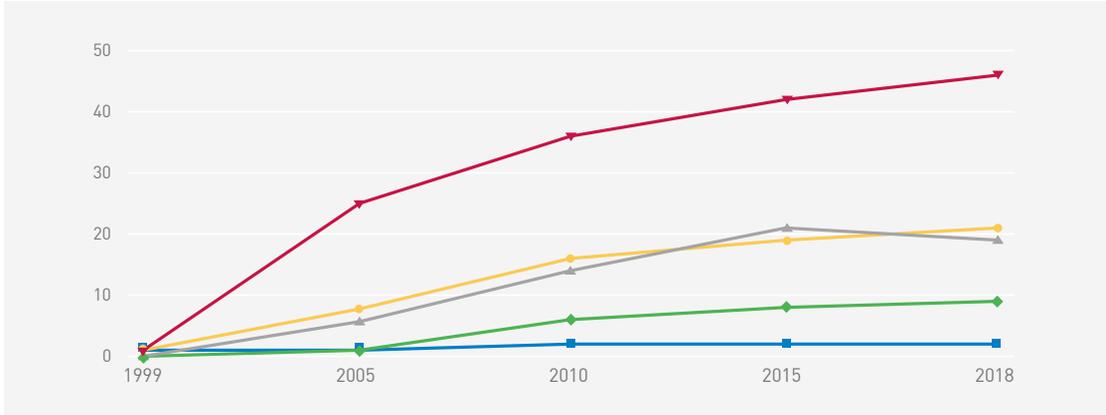


보다 자세한 정보는  
[TCS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간 협의체 개수 (2018년 기준)

2 ■ 정상회의    21 ● 장관급 회의    9 ◆ 고위급 회의    19 ▲ 국장급 회의    46 ▼ 실무자급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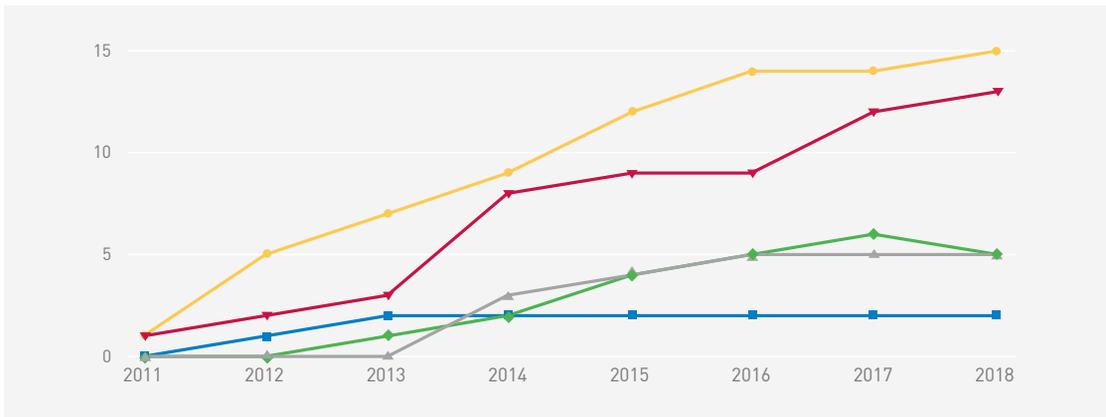
정부간 협의체 발전 (1999~2018년)



3국협력사무국 참여 협의체 개수 (2018년 기준)

2 ■ 정상회의    15 ● 장관급 회의    5 ◆ 고위급 회의    5 ▲ 국장급 회의    13 ▼ 실무자급 회의

3국협력사무국 참여 협의체 현황 (2011~2018년)





# II

## 협력사업 발굴 및 채택 지원

“당사자 간 잠재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확인  
그리고 그 사업의 채택을 위하여 관련 협의체  
에 대한 보고”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3조 1항 다호



# 1. 정무

## 제2차 한중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된 한중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Network of Trilateral Cooperation Think-Tanks (NTCT) Conference]는 3국간 학술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2015년 8월 31일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는 학술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한중일 3국 정부에 지적 지원을 제공하고 3국협력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3국간 협의체입니다.

제2차 한중일 NTCT 대표자 회의는 2017년 10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립외교원(KNDA), 중국외교학원(CFAU), 일본국제관계포럼(JFIR)이 공동 주최했으며, 3국협력사무국이 후원기관으로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3국 싱크탱크 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NTCT 운용 방식의 확립과 NTCT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참가자들은 3국협력사무국이 계속해서 NTCT 대표자 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지하고, 사무국의 제안사업인 연구 시리즈를 추진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대표자 회의에 이어서 '지역안보 상황과 협력', '한중일 경제 협력', '한중일 환경 협력'을 주제로 한 세 개의 토론 세션이 차례로 진행되었습니다. 3국의 저명한 학자들은 동북아 안보, 3국간 경제·환경 협력 등 역대 긴급한 사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고 정책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0월 13일
장	소:	한국·서울
주	최:	 국립외교원(KNDA)  중국외교학원(CFAU)  일본국제관계포럼(JFIR)
의	제:	지역 안보 상황과 협력, 한중일 경제 협력 및 환경 협력
프로그램:		2차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및 토론 세션

## 제9차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

2017년 10월 21일 제9차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ternational Symposium)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중일 3국 협력”이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의 동서대학교, 중국의 상하이사회과학원, 그리고 일본의 게이오대학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의 저명한 학자들과 고위급 외교관 등이 참석하여 동북아 지역 현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이종헌 사무총장도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종헌 사무총장은 한중일 협의체의 발전과정 및 여러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고 한중일 협력이 이루어온 성과와 3국 협력을 촉진해온 3국협력사무국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종헌 사무총장은 한중일 3국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기 보다는 “공통분모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내에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사무국은 다음 제10차 심포지엄을 상하이에서 공동주최할 예정입니다.

### 개요

- 일 자: 2017년 10월 21일
- 장 소: 한국·부산
- 주 최:  한국 동서대학교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  
 일본 게이오대학
- 주 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한중일 3국 협력”

## 2017 아시아 경제공동체 포럼

3국협력사무국은 201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된 2017 아시아 경제공동체 포럼(Asia Economic Community Forum)에 후원기관으로 참석했습니다. 올해 포럼은 “신고립주의, 4차 산업혁명과 아시아공동체”라는 대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이종헌 사무총장은 개회식 축사를 통해 3국 협력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역 협력의 틀로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신고립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기회로 역전시키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 및 지역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9회 모의 아시아 연합 총회(MAU)의 최우수 참가자에게 3국협력사무국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대학생 참가자들이 “4차 산업혁명과 아시아 공동체” 및 “4차 산업혁명과 청소년 정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 및 제안서 발표를 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7년 10월 31일 ~ 11월 2일
- 장 소: 한국·인천
- 주 최: 아시아 경제공동체 재단
- 주 제: “신고립주의, 4차 산업혁명과 아시아공동체”

## 보아오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

보아오 포럼(Boao Forum for Asia: BFA)은 2001년 2월 창설된 비정부·비영리 국제 기구입니다. BFA는 2002년부터 중국 하이난에 위치한 보아오에서 매년 연차총회(Annual Conference)를 개최했으며, 이 회의는 아시아와 기타 지역의 정부, 기업, 학계 지도자들이 경제, 사회, 환경, 기타 관련 의제에 관해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으로 발전해왔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2016년부터 BFA 연차총회에 초청받아 왔습니다.

이종현 사무총장은 2018년 4월 11일 개최된 2018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여 “아시아 지역협력의 혁신, 발전 및 미래”를 주제로 한 아시아 지역협력기구 라운드테이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중국 외교부 첸 샤오동(CHEN Xiaodong) 부부장, UN, 아세안,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중-아세안센터, 아시아협력대화(ACD) 사무국, 상하이협력기구(SCO) 및 기타 아시아 싱크탱크가 참석하여 아시아의 미래 지역협력에 관한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이종현 사무총장은 전후 국제질서의 동향을 분석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으로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과 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3국협력사무국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끝으로 지역협력 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상호연계성이 앞으로의 지역협력에서 가장 적합한 키워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4월 11일
- 장 소: 중국·보아오
- 주 최: 보아오 포럼(BFA) 사무국
- 주 제: “아시아 지역협력의 혁신, 발전 및 미래”

## 2018 한중일 신진학자 교류 협력

3국협력사무국은 2018년 7월 6일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IEWS)과 이 연구원의 협력기관인 와세다 대학, 칭화대학과 공동으로 2018 한중일 신진학자 교류 협력(Young Professionals Consortium on Trilateral Cooperation)을 주최했습니다. 이 사업은 박사생 및 박사 후 과정생을 포함한 청년학자들이 3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통 관심분야를 연구하며 3국 협력을 위한 혁신적인 제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올해는 ‘한중일 협력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 2018’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결된 미래: 신흥 초국경 이슈를 통한 새로운 3국 협력의 기회 모색”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한중일 협력에 관한 공동 심포지엄 2018’은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전문가 포럼으로 시작되었으며, 3국의 저명한 교수들이 한중일의 공동 대응과 협력이 필요한 초국경적 현안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3국협력사무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중일 신진학자 교류 협력’에서는 한중일의 신진학자들이 에너지, 과학·기술, 사회복지와 혁신, 문화 외교 등 관련 의제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여한 교수들을 포함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높게 평가했으며, 3국협력사무국이 계속해서 한중일 청년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하는데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7월 6일
- 장 소: TCS 국제회의장
- 주 최: 3국협력사무국,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IEWS)
- 참가자: 한중일의 교수 및 대학원생
- 주 제: “연결된 미래: 부상하는 국경간 쟁점을 통해 새로운 3국 협력의 기회 모색”

## 지역 협력에 관한 지역간 대화: ‘3+1’ 협력체제와 한중일 협력 전망

2018년 8월 21일 3국협력사무국은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위한 후속사업으로 “지역 협력에 관한 지역간 대화: ‘3+1’ 협력체제와 한중일 협력 전망(Inter-Regional Dialogue on Regional Cooperation: ‘3+1’ Modality and Trilateral Cooperation Outlook)”을 주최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EU 대표단, APEC 사무국에서 참여한 발표자들은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새롭게 채택된 ‘3+1’ 체제(또는 ‘CJK+X’ 협력)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공유하고 실현가능한 접근법과 적용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경험을 공유하고 실질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지역과 그 너머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고, 3국 대화와 협의를 강화시키는 등 3+1 협력방식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공유한다.”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비공식 번역본)」



이종헌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3+1' 체제는 현재의 3국간 협의체를 활용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한중일의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또한 한중일 3국이 '3+1' 체제를 통해 3국 관계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공유하고 제공하고자 하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8년 8월 21일

장 소: TCS 국제회의장

참가자: 한중일 학자, EU, APEC의 사회자 및 토론 참가자 10여 명

주 제: "3+1' 협력체제 및 한중일 협력 전망"

## 2.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 제3회 한중일 산업박람회

3국협력사무국은 2017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중국국제상회(CCOIC), 한국무역협회(KITA),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JAPIT)와 공동으로 제3회 한중일 산업박람회(China-Japan-Korea Industries Expo)를 주최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이종헌 사무총장은 개회식과 주요 부대행사인 한중일 경제통상 협력포럼 & 비즈니스 리더스 서밋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한중일 산업박람회가 한중일 3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기업 간 경제·무역 협력을 증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경제협회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3국의 경제협회간 유대를 강화하고 이들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한중일의 기업, 정부기관, 학계의 저명 인사들이 박람회와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한중일 산업박람회는 지리, 자원, 정책적 이점을 활용하여 전문분야에 걸쳐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지역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2015년 출범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5년 이 박람회의 후원기관이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박람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 2017년 박람회에는 211개 비(非)중국기업을 포함한 약 400개 기업이 참석하였으며, 인공지능, 미용, 음식 등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9월 23~25일

장 소: 중국·웨이팡

주 최: 3국협력사무국, 중국국제상회(CCOIC), 한국무역협회(KITA), 일본국제무역촉진협회(JAPIT)

참가자: 400여 개 한중일 기업

### 제1차 세계 세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총회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8년 2월 9~10일 양일간 개최된 제1차 세계 세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총회(Global Cross-Border E-Commerce Conference)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야기된 이슈들과 무역 촉진 및 간소화, 안전과 보안, 세금 징수, 측정 및 분석, 새로운 파트너십의 기회 등을 다루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의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은 “일대일로: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회”를 주제로 한 라운드테이블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한중일의 전자상거래 발전과 공급망 연결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3국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세관, 정부기관, 국제기구, 학계, 기업체 관계자 등 16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3국협력사무국이 관련 사업을 관중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세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플랫폼이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2월 9~10일
- 장 소: 중국·베이징
- 주 최: 세계관세기구(WCO), 중국 해관총서(GACC)
- 참가자: 각국 세관, 정무기관, 국제기구, 학계, 기업체 관계자 등 1600여 명
- 주 제: “지속가능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를 위한 혁신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

## 한중일 상협회 협력 및 신흥산업 경제무역투자협력 정상회의

한중일 상협회 협력 및 신흥산업 경제무역투자협력 정상회의(Trilateral Summit of Business Association Cooperation & Economic,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in Emerging Industries)가 2018년 5월 18일 중국 사오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 새로운 추진력”이라는 주제로 상협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3국의 신흥산업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은 자유무역과 지역 경제통합, 신흥산업의 혁신과 개발, 지방정부와 상협회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사무국의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중일 일대일로 상협회 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한중일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관련 분야에서 실질적인 소통을 촉진하며,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5월 18일
- 장 소: 중국·사오싱
- 주 최: 중국국제상회(CCOIC), 사오싱시 인민정부
- 주 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경제, 새로운 추진력”

## 제10회 APEC 중소기업 기술교류 및 전시회

제10회 APEC 중소기업 기술교류 및 전시회(APEC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echnology Conference and Fair: APEC SMETC)가 2018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선양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APEC의 승인을 받아 주최하는 중소기업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고위급 행사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는 “발전을 위한 혁신, 미래를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차오 원 경제부장은 행사기간 중 개최된 동북아시아 중소기업 혁신개발포럼에서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3국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개요

일 자: 2018년 6월 27~29일  
장 소: 중국·선양  
주 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랴오닝성 인민 정부(GACC)  
주 제: “발전을 위한 혁신, 미래를 위한 협력”

## 제6차 한중일 비즈니스 세미나 및 교류회

한중일 비즈니스 세미나 및 교류회(Trilateral Business Seminar & Networking Reception: TBNR)는 한중일 비즈니스 리더 간의 교류, 소통,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13년 시작된 3국협력사무국의 연례사업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순번제로 개최합니다. 제6차 한중일 비즈니스 세미나 및 교류회는 2018년 7월 3일 “한중일 초국경 스타트업을 위한 공공-민간 교류”라는 주제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경제 협회, 공공기관, 대기업, 스타트업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한중일 스타트업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공공부문과 스타트업”을 주제로 발표자들이 초국경 벤처기업들을 위한 국내 정책을 소개하고 초국경 스타트업을 장려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기업가들은 3국간 타국으로 진출할 때 부딪히는 장벽과 장애물에 대해 설명하고, 초국경 스타트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간부문과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발표자들이 상호협력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과 행사 후원기관은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이 정신을 증진하고 초국경 스타트업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3국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7월 3일
- 장 소:** 일본·도쿄
- 주 최:** 3국협력사무국
- 후 원:**  일본경제단체연합회(Keidanren),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  
 전국경제인연합회(FKI), 중소기업진흥공단(SBC)  
 중국국제상회(CCOIC)
- 주 제:** “한중일 초국경 스타트업을 위한 공공-민간 교류”

### 3. 사회·문화

#### 로쿠스 디자인 포럼 출판 기념회

로쿠스 디자인 포럼 출판 기념회(Locus Design Forum Publication Ceremony)가 2017년 9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책'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한중일의 저명한 디자이너와 건축가의 공동 작품을 전시하는 3국 순회전시회입니다. 2012년 일본 도쿄에서 제1차 포럼이 개최되었고, 2016년 서울에서 제2차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제1차 포럼의 후속사업으로 제작된 12권의 출판물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9월 8일  
**장 소:** 한국·서울  
**주 최:** 로쿠스 디자인 포럼  
**후 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국건축가협회  
**참가자:** 한중일 건축가와 북 디자이너, 로쿠스 디자인 포럼 조직위원회 회원, 국제건축가연맹(UIA) 참가자를 포함한 60여 명

#### 2017 '일대일로' 미디어 협력 포럼

'일대일로' 미디어 협력 포럼(Media Cooperation Forum on Belt and Road)은 중국 언론사와 해외 언론사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중국 인민일보에서 매년 주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규모의 국제 미디어 포럼입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새로운 협력 전망: 운명 공동체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중국 외 126개 국가의 언론사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포함한 460여 명의 간부급 언론인이 참석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참관인 자격으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9월 18~21일  
**장 소:** 중국·둔황  
**주 최:** 인민일보  
**참가자:** 126개국 265여 개 언론사  
**주 제:** "새로운 협력 구도: 운명 공동체를 향하여"

## 2017 중국(안양)국제한자대회

2017 중국(안양)국제한자대회[China (Anyang)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hinese Characters]가 2017년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안양에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CPAFFC), 허난성 인민정부, 3국협력사무국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약 20명의 한중일 언어학자와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658개 어휘항목을 최종점검하고 어휘설명과 예제의 비교작업, 레이아웃 등 어휘집의 편찬작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9월 18~22일

장 소: 중국·안양

주 최: 3국협력사무국,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CPAFFC), 허난성 인민 정부

참가자: 25개국 외교단 70여 명, 중국학자, 외국인 전문가, 유학생, 문자문화 전문가 190여 명 등

## 2017·2018 한일중 3국 청년모의정상회의

3국협력사무국은 한일중 3국 청년모의정상회의(Trilateral Youth Summit: TYS)를 2017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장춘과 베이징에서, 2018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각각 공동주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중일의 미래 지도자들이 3국 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교 및 국제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키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014년에 시작된 한일중 청년모의정상회의는 3국협력사무국과 한중일 외교부가 매년 공동주최하는 학생교류사업으로 3국 외교부가 순환제로 3국협력사무국과 함께 사업을 진행합니다.



30명의 학생대표들은 일주일의 활동기간 동안 한중일 국적이 혼합된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환경, 경제, 문화 분야에서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참가 학생들은 예비 회의, 특별 강연, 대표단/위원회 회의, 모의정상회의,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각 그룹은 협의를 통하여 공동 선언문을 작성하고 이를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 열린 모의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습니다.

## 개요

### 2017 TYS

**일 자:** 2017년 9월 25~30일  
**장 소:** 중국·장춘, 베이징  
**주 최:** 3국협력사무국, 중국 외교부  
**주 제:** “동북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향해”

### 2018 TYS

**일 자:** 2018년 8월 26~31일  
**장 소:** 한국·서울  
**주 최:** 3국협력사무국, 한국 외교부  
**의 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여’, ‘한중일 FTA을 향해’, ‘동북아시아의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 제13회 한중일 문화교류포럼

제13회 한중일 문화교류포럼(Trilateral Culture Exchange Forum)이 2017년 11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 강릉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자매 도시와 청소년 교류를 통해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문화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화유산 보존, 지역 문화 홍보, 한중일 영화 제작 협력, 패션 및 창의산업을 포함한 문화 교류의 여러 분야에 관해 논의합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4년부터 이 포럼에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석해 왔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1월 1~3일  
**장 소:** 한국·강릉  
**주 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  
 일본국제교류기금  
 한일문화교류회의  
**후 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연구기금, 동아시아재단(EAF)  
**주 제:** 한중일 올림픽 개최 및 동북아 문화 교류

## ‘동아시아의 다채로운 발전 및 한중일의 공헌’ 국제 심포지엄

‘동아시아의 다채로운 발전 및 한중일의 공헌’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for East Asia’s Colorful Development and Contribution through Trilateral Cooperation)이 푸단대학 국제관계·공공사무학원과 중국-주변국관계연구센터(CCRNC)의 공동 주최로 2017년 11월 4일과 5일 양일간 중국 푸단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동아시아의 다채로운 발전 및 한중일의 공헌’이란 주제 하에 40여 명의 한중일 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한 메이 사무차장은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세션 해설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1월 4~5일  
**장 소:** 중국·상하이  
**주 최:** 푸단대학  
**주 제:** “동아시아의 다채로운 발전 및 한중일의 공헌”

## 2017 한중일 기자 합동취재 프로그램

3국협력사무국은 2017년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환구시보와 함께 제4회 한중일 기자 합동취재 프로그램(CJK Journalist Joint Interview Program)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새로운 농촌 건설”이었습니다. 2주간의 프로그램 기간동안 언론인 대표단은 올해의 주제와 관련된 한중일의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3국협력 관련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동취재를 수행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과 환구시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 프로그램은 2014년에 시작되어 올해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3국협력 발전에 대한 언론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한중일 언론인 대표 약 10명을 선발하여 특정 주제에 관한 공동 취재를 진행합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1월 5~18일  
**장 소:**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한국·서울 (방문 도시순)  
**주 최:** 3국협력사무국, 환구시보  
**참 가 자:** 한중일 언론인 10명  
**주 제:** “지속가능한 개발과 새로운 농촌 건설”  
**방문기관:**

- 국무원 빈곤 구제 개발 영도 소조(領導小組) 전문가 자문 위원회, 룡계 주향 토마토 농장, 신파디 농산물 도매시장, 알리바바 지방개발부서, 뉴호프유업
- 일본 농림수산성, 시즈오카 차밭, 후지츠 아키사이 농장, 치바 농장
- 농협, 가락시장

## 제7회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Trilateral Campus Harmony)는 한중우호협회(KCFA)가 2011년부터 개최한 멀티미디어 발표 대회로, 한중일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모아 3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과 한중우호협회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공동으로 주최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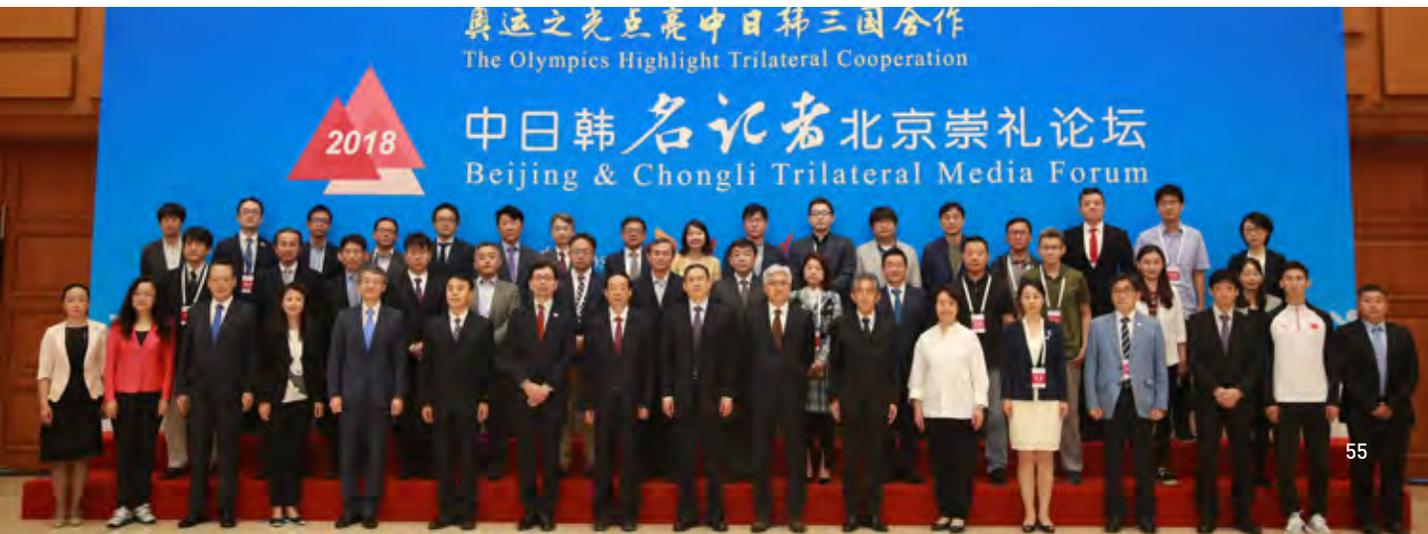
제7회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는 2017년 11월 16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 메이 사무차장은 개회식에서 축사를 전달했습니다. 총 7개의 참가팀이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바라며, 함께 만들어 가는 한중일 3국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만든 UCC 영상을 발표하고 영상 제작과정을 설명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심사위원으로 대회에 참여하여 "전통 수공예로 연결된 한중일"이라는 영상을 제작한 '한중일 유니-유니'팀에게 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상을 수여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7년 11월 16일
- 장 소: 한국·서울
- 주 최: 3국협력사무국, 한중우호협회(KCFA)
- 후 원: 한국 외교부, 주한 중국대사관, 주한 일본대사관, 경희대학교
- 참가자: 7개의 한중일 다국적팀과 130여 명의 참관객
- 주 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바라며, 함께 만들어 가는 한중일 3국의 모습"

## 한중일 명기자 베이징-충리 3자 미디어 포럼

한중일 언론협력 강화를 위한 연례행사인 한중일 명기자 베이징-충리 3자 미디어 포럼(Beijing & Chongli Forum for Trilateral Media Dialogue)이 중국 인민일보의 주최로 "올림픽을 통한 3국 협력"이란 주제 아래 중국 베이징에서 2018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약 110명의 언론인, 스포츠계 인사,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 간부, 중국 국가체육총국 관계자들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한 메이 사무차장도 포럼에 초청을 받아 축사를 전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5월 18일
- 장 소:** 중국·베이징
- 주 최:** 인민일보
- 참가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중국 국가체육총국 간부
- 주 제:**
  - 올림픽과 한중일 문화협력
  - 올림픽과 도시개발 및 스포츠산업의 발전
  - 변화와 지속: 스포츠 뉴스의 신기술

## 제1회 따오기 국제포럼

3국협력사무국은 2018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산시성 양현에서 개최된 제1회 따오기 국제포럼(Crested Ibis International Forum)을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CPAFFC), 한중문화우호협회, 일본-중국 사회와 함께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이종현 사무총장과 한 메이 사무차장도 포럼에 참석하여 각자 개회사와 기조연설을 전했습니다. 문화 공연, 시장(市長)들 간의 3자 대화 및 양자 대화 등 부대행사도 개최되었습니다. 중국 한중시, 한국 창녕군, 일본 사토시 지방정부는 농업, 환경, 관광 분야에서의 따오기 관련 향후 협력을 위한 「양현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5월 22~24일
- 장 소:** 중국·양현
- 주 최:** 3국협력사무국,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CPAFFC), 한중문화우호협회, 일본-중국 사회
- 참가자:** 지방정부 관계자, 전문가, 3국 우호협회 관계자 등 200여 명
- 주 제:** “따오기를 통한 유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및 토크콘서트 포럼

3국협력사무국은 2018년 6월 4일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및 토크콘서트 포럼(Korea-Japan-China Olympic Road Photo Exhibition and Talk Concert Forum)을 개최하고, 신설된 TCS 국제회의장 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2018년 5월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창, 도쿄, 베이징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국제회의장 복도에서 진행된 사진전은 평창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한중일 선수단이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담은 83장의 사진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 팝페라 듀엣 '휴'와 아카펠라팀인 '메이트리'의 축하공연과 한중일 전통차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포럼에는 고위급 정부관료, 학자와 기자, 일반인을 포함해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박은아 공공외교대사, 나가미네 야스마사(NAGAMINE Yasumasa) 주한일본대사, 추 귀홍(QIU Guohong) 주한중국대사, 취 환(QU Huan) 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이 오프닝 세션에 참석하여 한중일 협력의 주춧돌이 될 2018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토대로 한 올림픽 분야에서의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크콘서트 세션에는 MBC 허일후 아나운서가 사회를 보았으며, 신의현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국가대표, 임효준 올림픽 쇼트트랙 국가대표, 오비나타 쿠니코(OBINATA Kuniko) 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한중 국제케플인 김지선 상하이 컬링협회 유소년팀 감독과 쉬 샤오밍(XU Xiaoming) 컬링 중국 국가대표가 참석했으며, 역경과 난관을 극복한 각자의 경험과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한중일 선수들이 보여준 인상 깊은 스포츠 정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한중일 올림픽 조직위원회 회원들이 평창올림픽에서 얻은 교훈과 다가오는 도쿄 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에서 3국 협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6월 4일
- 장 소: TCS 국제회의장
- 주 최: 3국협력사무국
- 참가자: 한국 정부부처, 국회, 강원도청 소속 공무원, 서울 주재 각국 대사관, 문화원, 국제기구 관계자, 각국 언론인 및 특파원, 학생 등 100여 명
- 프로그램: 사진전, TCS 국제회의장 제막식, 토크콘서트, 패널 토론 등

## 2018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

3국협력사무국은 2018년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 도쿄 및 서울(방문 도시순)에서 제 5차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Trilateral Journalist Exchange Program: TJEP)을 개최했습니다. 열흘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 기간동안 한 메이 사무차장이 한중일 3국에서 모인 9명의 간부급 기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안내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은 “향후 10년의 한중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3국 협력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3국 협력을 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첫 방문국인 중국에서 TJEP 대표단은 외교부의 천 하이(CHEN Hai) 아주국 부국장과 만남을 갖고, 외교부 정기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문가들을 만나 토론하고 중국외교학원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에 참가했으며 텐센트의 온라인미디어팀을 방문하고 미디어 분야 신기술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무성 산하의 일본국제문제연구원 구소에 방문하여 동북아 협력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브리핑을 들었으며, 아시아신문사 미디어랩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3국협력사무국을 방문하고 이종현 사무총장을 인터뷰했으며, 외교부와 SBS를 방문했습니다. 2018 TJEP는 6월 22일 3국협력사무국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 개요

**일 자:** 2018년 6월 13~22일  
**장 소:**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한국·서울  
**주 최:** 3국협력사무국  
**참 가 자:** 한중일 기자 9명  
**주 제:** "향후 10년의 3국 협력"  
**주요활동:** 기자회견, 인터뷰, 토론 및 세미나 등

## 2018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2018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Trilateral Youth Diplomatic Camp)가 2018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전남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매년 주최하는 이 행사는 3국의 차세대 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중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획된 여름 정기사업입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홍보, 참가자 모집, 오리엔테이션 세션 주치를 통해 프로그램을 후원했습니다. 또한, 이종헌 사무총장이 축사를 전달하고 사무국과 3국 협력에 관한 강연을 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8년 7월 16~20일  
**장 소:** 한국·서울, 전라남도  
**주 최:** 한국 외교부  
**참 가 자:** 한중일 대학생 90명  
**프로그램:**

- 한중일 협력 아이디어 경진대회
- 한중일 청년교류 경험 프리젠테이션
- 청년 관련 이슈 공유





## 2018 청년대사 프로그램

2018 청년대사 프로그램(Young Ambassador Program: YAP)이 2018년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3국협력사무국에서 주관하는 학생교류사업으로 미래의 한중일 리더들이 3국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체 의식과 우정을 쌓을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에는 20명의 한중일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참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중일 3국의 비교 연구와 3국 경제협력에 관한 강연, 3국협력사무국의 기능과 활동에 관한 부서별 브리핑,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방문, 외교관과의 대화, 청년 세미나 및 팀프로젝트로 구성되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7월 30일~8월 10일
- 장 소: 한국·서울, 제주
- 참 가 자: 한중일 대학생 20명
- 주요 활동: 특별 강연, 한국 외교부, 국제기구, 재외공관 등 방문, 팀워크 활동, 청년 세미나 대화/토론, 팀프로젝트

## 한중일 삼국일칠 옷칠예술 아티스트토크 & 전시회

한중일 삼국일칠 옷칠예술 아티스트토크 & 전시회(Trilateral Artist Talk & Exhibition)는 3국 예술 교류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 분야의 3국 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2018년 8월 17일 한중일 옷칠예술 작가들의 토크콘서트로 시작되었으며, 8월 말까지 2주일에 걸쳐 회화 14점과 조각 10점을 포함한 총 24개의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또한 한중일 시음회와 전통음악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3국의 정부 관계자, 학자, 언론인, 일반인 등 300여 명이 이 행사에 방문했습니다. 특히, 개최식에 참가한 한국 외교부 최광진 국민외교센터장, 장 중화(ZHANG Zhonghua) 주한 중국문화원장, 야마사키 히로키(YAMASAKI Hiroki)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소장은 축사를 통해 3국협력사무국이 주최하는 활발한 문화 활동들을 환영하고, 3국의 공동 문화유산인 옷칠



이종현, <인동(忍冬)계열 2>, 2003년 작



미즈카미 오사무, <평문칠기함 「물소리」>, 2014년 작



양 페이장, <차 시광 선생의 초상>, 2009년 작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이종현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미즈카미 오사무(MIZUKAMI Osamu) 오키나와 현립 예술대(OPUA) 교수, 샤 야핑(XIA Yaping) 사천 미술학원(SFAI) 부원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각국의 옷칠 예술의 특성과 과거, 현재, 미래의 전망을 소개했습니다. 선승혜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장이 진행한 아티스트토크에서는 송완근 고려대학교 강사, 조해리 서울대학교 강사, 양 페이장(YANG Feizhang) 칭화대학 교수, 양 리산(YANG Lishan) 사천미술학원 교수, 미즈카미 오사무(MIZUKAMI Osamu) 오키나와 현립예술대학 교수, 토마 시게루(TOMA Shigeru) 오키나와 현립예술대학 교수가 각자의 예술적 비전을 공유하고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8월 17~31일
- 장 소: TCS 국제회의장
- 주 최: 3국협력사무국
- 참가자: 방문객 300여 명
- 주 제: “옷칠예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프로그램: 옷칠예술 전시회, 아티스트 토크콘서트, 전통차 시음회





## 2018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

2018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China-Japan-ROK Children's Story Exchange Program) 프로그램이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도쿄와 야마가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NIYE), 중국 관심하일대공작위원회(CNCCC), 서울교육대학교(SNUE),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사무국을 제외한 3개의 주최기관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 참가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3국협력사무국은 대학생 참가경험자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무국은 작년에 이어 2018년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 동문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된 어린이 동화교류 프로그램에 초등학생으로 참가했던 대학생들이 어느덧 동문이 되었습니다. 매해 이 프로그램에는 어려서부터 한중일 3국 협력을 경험했던 30명의 한중일 동문들이 재방문하여 참가경험자들의 커뮤니티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8월 17~23일
- 장 소:** 일본·도쿄, 야마가타
- 주 최:** 3국협력사무국, 일본 국립청소년교육진흥기구(NIYE), 중국 관심하일대공작위원회(CNCCC), 서울교육대학교(SNUE)
- 참 가 자:** 한중일 어린이 100명(각국 33명)과 동문학생 26명
- 주 제:** “꽃”
- 주요활동:** 스토리북 제작(어린이); 동문 커뮤니티 관리를 위한 토론 및 전략 개발(동문학생)



## 캠퍼스아시아 베이징-서울-도쿄(베세토) 동문 역량강화 워크숍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캠퍼스아시아 베세토 동문회와 협력 하에 2018년 8월 25일 역량강화 워크숍(TCS X CAMPUS Asia BESETO Alumni Association 'Regenerate China-Japan-Korea' Capacity Building Workshop)을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한중일 3국 정부기관, 컨설팅 및 투자회사, 학계에 몸담고 있는 30여 명의 캠퍼스아시아 동문 출신 전문가들이 이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들 참가자들은 모두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원(SIS),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GSIS),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GrasPP)의 캠퍼스아시아 베세토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캠퍼스아시아 베세토 동문회의 제안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실질적이고 유익한 프로젝트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지역협력과 한중일 3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3국의 청년 전문가들을 위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한중일 교육부의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장학금을 수혜 받았던 동문들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를 위한 기업가 정신 역량 구축”이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8년 8월 25일
장 소:	한국·서울
주 최:	캠퍼스아시아 베세토 동문회
참 가 자:	베이징대학·서울대학교·도쿄대학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수료생 30명
주 제:	“사회적 기업가정신 역량 구축”
주요활동:	사회적 기여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 제시

## 4. 공동 사업

### 2018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for the Trilateral Cooperation: IFTC)은 3국협력사무국의 주요 연례사업 중 하나로 한중일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들을 공유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3국간 파트너십을 위한 모멘텀을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3국 협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8년 4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 — 지난 10년, 다가올 10년”이라는 주제로 2018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18년은 2008년 별도의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모멘텀을 맞아 2018 IFTC는 지난 10년 간 한중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위한 협력의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고위급 정부인사와 저명한 학자들을 포함하여 정부기관, 학계, 언론, 비즈니스 부문에서 약 300여 명이 2018 IFTC에 참석했습니다. 연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와 관련한 3개의 세션에서 3국 협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이 분야의 지식을 교환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8년 4월 18일

장 소: 일본·도쿄

참가자: 3국 정부 인사, 학자, 사업가, 관련 전문가, 언론, 일반인 등 300여 명

주 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 — 지난 10년, 다가올 10년”



“커넥팅 더 닷(Connecting the Dots):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적 로드맵 구상”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연자와 토론자들이 향후 10년간 지역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 전략 수립 혹은 로드맵 작성을 위해 한중일 각국의 국가전략과 정책 간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각국의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3국간의 공통점을 모색함으로써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10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제안들을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경제협력을 통한 3국간 협의체의 제도화”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연사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세계 권력 균형의 변화에 직면하여 보다 발전된 지역 통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 문제로 인해 지역통합이 난관에 봉착할 때도 있지만, 경제발전에 대한 기대가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발표와 토론 내용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구 ‘TPP’),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EC)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여 지역 통합을 달성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파트너십의 참고사례로 유럽연합(EU)이 소개되었습니다.

세 번째 세션은 “공동창출 및 공유: 미래지향적 한중일 문화 및 인적 교류의 촉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 정치 체제, 경제발전 단계에서의 3국간 차이점을 극복하는 데 있어 문화와 인적교류의 중요성과 역할에 중점을 두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따오기 국제포럼 및 캠퍼스아시아 사업과 관련된 3국의 이니셔티브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유럽 문화 수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 등의 타지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연사들은 정치, 경제, 안보와 관련한 정책과 체제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지만, 상호 이해 및 우호관계 증진이 지역협력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2018 IFTC는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3국 협력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지혜를 모으고, 지역 평화와 안정 구축을 위한 3국 협력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미있는 플랫폼을 시의적절하게 제공했습니다. 3국협력 사무국은 지난 포럼에 관한 정보를 담은 IFTC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포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IFTC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Jeju Forum for Peace and Prosperity)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교부 지원 하에 주최하는 연례사업입니다. 이 포럼은 역내 다자간 대화의 장으로서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주포럼은 본회의 및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를 포함해 60여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4년부터 세션 주최기관으로 포럼에 참여해 왔습니다.

2018년 제주포럼의 주제는 “아시아 평화의 재정립”으로 혁신적인 방식으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8년 6월 28일 두 차례의 세션을 주관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3국 협력의 새로운 조망: 비전 2020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한중일 외교부의 동북아 담당 부국장들과 3명의 한중일 학자들이 초청되었습니다. 이종현 사무총장의 진행 하에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 비추어 지난 20년간 이루어 온 3국 협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사들은 특히 역내 평화구축과 3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3국 협력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어 경제 세션은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을 위한 한중일 경제협력”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017 한중일 3국 경제보고서』의 집필자들이 한중일 3국에서 개최되었던 역대 올림픽을 돌아보고, 2020년 도쿄와 2022년 베이징에서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션은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이 진행하였으며, 연사들은 역대 올림픽 대회의 영향과 한중일 정부, 기업체, 학계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8년 6월 28일

장 소: 한국·제주

주 최: 제주평화연구원

주 제: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사무국 세션:

- 3국 협력의 새로운 조망: 비전 2020을 넘어서
- 올림픽 및 패럴림픽 성공을 위한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 III

##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조정

“당사자 및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국제기구, 특히  
다른 동아시아 협력체와 연락 및 조정”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제3조 제1항 나호

# 1. 지역협력기구 및 국제기구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제3조 제1항 나호에 따라 역내 및 국제 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확대하는 것은 사무국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EAEC) 구축이라는 비전을 위해 정기적인 방문과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세안,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 등 동아시아 지역 파트너와의 기존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동아시아 역외 국제기구를 포함한 지역간 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역협력기구

###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

#### 제40차 및 제42차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 실무그룹회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2018년 1월 15일과 8월 29일 싱가포르에서 각각 개최된 제 40차 및 제42차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 실무그룹회의[East Asia Business Council (EABC) Working Group Meeting]에 참석하여 아세안+3 협력에 대한 사무국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 관심분야를 검토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고광덕 경제부장은 제42차회의에서 지역 연계성과 관련된 사무국의 활동을 소개하고 아세안+3 공급망 연결(SCC) 향상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제42차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 실무그룹회의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는 2003년 10월 아세안+3 정상들의 승인을 받아 2004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족되었습니다. 이 기관의 설립목적은 역내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하고 아세안+3 국가간 민간부문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아세안+3 20주년 기념 마닐라 선언」과 「아세안+3 협력 작업계획(2018-2022)」에 따라 역내 통합을 촉진하고 아세안+3 협력 활동과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EABC와 협력 하에 무역과 투자 활성화에 노력할 것입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1월 15일 (제40차), 2018년 8월 29일 (제42차)
- 장 소:** 싱가포르
- 주 최:**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
- 참가자:** 3국협력사무국, 아세안+3 기업협회, 한·중·일-아세안센터, 아세안+3 민간기관
- 의 제:**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위한 아세안+3 비즈니스 협력
  - 전자상거래
  - 중소기업(MSMEs) 및 투자 데이터베이스

## 중-아세안센터

제4대 3국협력사무국 협의이사회는 2018년 2월 6일 베이징에 위치한 중-아세안센터(ASEAN-China Centre: ACC)를 방문하여 양 시우핑(YANG Xiuping)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향후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 사무총장은 사무국 대표단을 환영하는 한편, 중-아세안센터의 조직구조, 운영방식 및 주요 성과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이종현 사무총장은 중-아세안센터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상호 학습하고 아세안+3 체제 하에서 역내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발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한-아세안센터

한-아세안센터(ASEAN-Korea Centre: AKC) 이혁 신임 사무총장은 2018년 5월 10일 3국협력사무국을 방문하여 이종현 사무총장과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두 사무총장은 전날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들이 인식한 바와 같이 한중일 협력과 아세안+3 협력간의 연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주한 EU 대표부

이종현 사무총장은 2018년 5월 28일 주한 EU 대표부의 새 사무실을 방문하여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 대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종현 사무총장은 EU 대사에게 3국 협력의 현황, 특히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 사무총장과 라이터러 대사는 유럽 통합의 경험을 토대로 동북아의 지역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중요하며 두 기관이 계속해서 상호협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 주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주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The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 CPR) 대표단이 2018년 6월 25일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을 방문하고 협의이사회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무국은 주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대표단을 환영하며 사무국의 기능 및 사업을 간략히 설명하고, 문화교류, 청소년교류 등 아세안과 가능한 협력분야를 강조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과 주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대표단은 2018년 5월에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합의사항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3+1” 모델을 포함한 3국의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은 역내 기능적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주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대표단은 3국협력 사무국 자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 사무국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제10차 유엔글로벌콤팩트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중일 라운드테이블 컨퍼런스[UN Global Compact (UNGC) China-Japan-Korea Roundtable Conference]는 3국의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역협회가 2009년부터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3국의 기업 대표, 학계 및 청소년을 한 자리에 모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컨퍼런스는 “비즈니스의 지속가능발전 - 도전 혹은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령화 사회와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들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관련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청년세션 준비회의에 사회자로 참석하여 대학생 대표단을 지도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에는 이종현 사무총장이 개회식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소통을 통해 기존의 차이점을 좁혀나가고 3국의 잠재력을 발휘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8월 31일
- 장 소: 한국·서울
- 주 최: 한·중·일 글로벌 콤팩트 지역협회
- 주 제: “비즈니스의 지속가능발전 - 도전 혹은 기회”

## 2.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관

3국협력사무국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는 3국 정부 간 다양한 협의체를 지원하고 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과 활동을 이행하는 것으로, 한중일 3국 정부, 관련 공공기관 및 공관은 3국협력사무국의 중요한 유관기관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들 기관과 긴밀한 네트워크와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협의체에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사무국 협의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관련 부처 및 기관을 방문하여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각급별 네트워크를 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에는 이종현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이 한중일 각국을 방문하고,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방문기간 동안 사무국 대표단은 3국협력사무국 활동에 대한 이들 기관의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3국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 사무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한국

- 일 자:** 2017년 11월 ~ 2018년 2월
- 장 소:** 한국·서울, 세종시, 중국·베이징
- 방문기관:**
- 외교부(MOFA)
  - 행정안전부(MOIS)
  - 국토교통부(MOLIT)
  - 문화체육관광부(MCST)
  - 교육부(MOE)
  - 보건복지부(MOHW)
  - 산림청(KFS)
  - 원자력안전위원회(NSSC)
  - 경찰청(KNPA)
  - 한일경제협회(KJEA)
  - 주중 한국대사관

한국 외교부



## 중국

일 자: 2018년 2~3월

장 소: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 방문기관:
- 외교부(MOFA)
  - 문화여유부(MCT)
  - 민정부(MCA)
  - 생태환경부(MEE)
  - 교통운수부(MOT)
  -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NHFFC)
  - 상무부(MOFCOM)
  -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CPAFFC)
  - 교육부(MOE)
  - 주일 중국대사관
  - 수리부(MWR)



중국 외교부

## 일본

일 자: 2018년 2~3월

장 소: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 방문기관:
- 외무성(MOFA)
  - 후생노동성(MHLW)
  - 스포츠청
  - 재무성
  - 환경성(MOE)
  - 원자력규제협회(NRA)
  - 국토교통성(MLIT)
  - 일본특허청(JPO)
  - 문부과학성(MEXT)
  -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 문화청
  - 주중 일본대사관
  - 총무성(MIC)



일본 외무성

### 3. 지방정부

오늘날 세계화가 국가간 관계에서 지방정부간, 시민단체간, 개인간의 관계로 확장됨에 따라 이른 바 '지방의 세계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일대일 자매 도시 결연보다는 다자간 도시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다자간 교류의 증대는 세계화와 지역협력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중일의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와 같은 기존 협의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3국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정부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협력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중국 구이저우성

##### 2017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Trilateral Local Governments' Forum on Three Rural Issues)은 노령화 및 도시와 농촌의 소득 불균형과 같은 공통의 문제에 직면한 3국의 지방정부간에 농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3국 협력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정부가 주최하며 한중일 지방정부, 농업 연구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서 400여 명의 방문자들이 참가합니다.

2017년 포럼은 9월 17~18일 양일간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에서 열렸습니다. 3국의 대표 참가자들은 “산악 농업 개발과 녹색 혜택 공유”를 주제로 농업 유산의 보존과 홍보, 전자상거래 협력과 개발, 농업 통합을 위한 기술발전 및 개발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이 포럼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이종헌 사무총장이 개회식에서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3농포럼을 통해 한중일 3국 지방정부가 신농업분야에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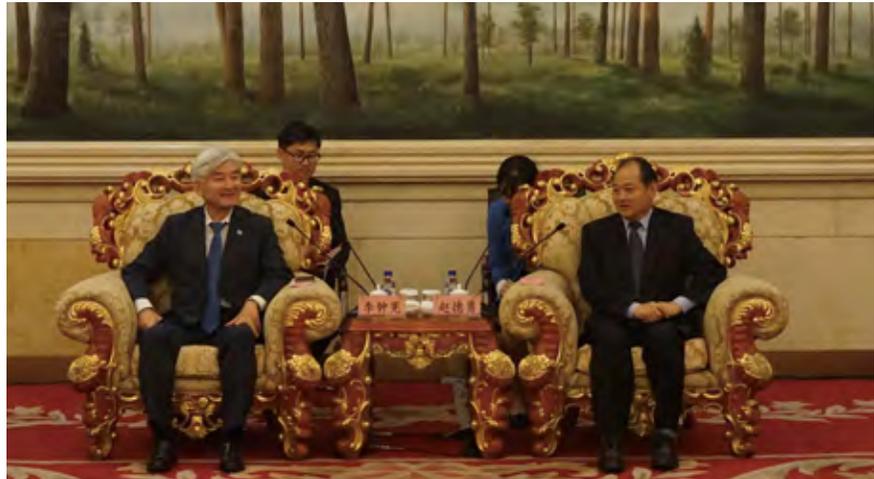
#### 개요

일 자:	2017년 9월 17~18일
장 소:	중국·구이양
주 최: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정부
참 가 자:	 구이저우성  사가현  충청남도, 세종시
주 제:	“산악 농업 개발과 녹색 혜택 공유”
성 과:	한중일 지방정부 농업 협력 (구이양 인민정부 제안서)
부대행사:	(1) 농업 유산 보존 및 홍보, (2) 전자상거래 협력 및 개발, (3) 농업 통합을 위한 기술 발전 및 개발에 관한 3개 하위포럼

## 중국 지린성

이종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중국 외교부와 지린성 인민정부의 초청을 받아 2018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창춘시, 훈춘시, 연길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대표단은 지린성 정부, 지린대학,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가 주최하는 합동 회의에 참석하여 지방정부 교류, 경제협력, 인적 교류 분야에서 한중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자오 더용(ZHAO Deyong) 연변조선족자치주 부주장과의 회담



### 제12회 연길·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 박람회 및 두만강지역 경제자유구역 세미나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야마모토 야스시 사무차장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의 초청을 받아 연길과 훈춘에서 각각 개최된 제12회 연길·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 박람회와 두만강지역 경제자유구역 세미나(Yanji-Tumen River Area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Fair & Tumen River Region Free Trade Zone Seminar)에 참석하였습니다. 야마모토 사무차장은 세미나에서 동북아 지역의 자유 무역과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역내 국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8월 28~31일
- 장 소:** 중국·연길, 훈춘
- 주 최:**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 지린성 상무부, 지린성 경제협력개발국, 지린성 국제무역진흥위원회, 지린성 관광개발위원회
- 참가자:** 정부인사, 민간부문 대표, 학계인사
- 주 제:** “개발, 협력, 윈-윈 그리고 발전”



지린성 정부 대표단과의 합동회의

## 4. 언론 및 홍보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3국 협력사무국은 3국의 국민들에게 지역 협력의 혜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중일 30인회(NATF) 등 유관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동시에 사무국은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TJEP), 한중일 기자 합동취재 프로그램 등 관련 사업을 개최하여 우호적인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2017 회계연도에는 제4차 협의이사회 취임 후 3국 주요 언론사를 방문하여 한중일 30인회의 진행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 한중일 30인회(NATF)는 정치, 경제, 학술 및 문화계 주요인사들이 모여 다방면에 걸쳐 지역 협력을 논의하는 중요한 지역 플랫폼입니다. 2006년에 발족하여 한국 중앙일보, 중국 신화사, 일본 닛케이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해오고 있습니다.

### 중앙일보

3국협력사무국 협의이사회는 2017년 11월 7일 중앙일보사를 방문하여 이홍구 전 국무총리(현 중앙일보 고문)와 한중일 협력 및 한중일 30인회\*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30인회 한국대표단으로서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현 중앙일보 고문)도 참석하였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는 지난 6년 동안 3국간 경제협력의 발전에 주목하는 한편 3국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3국의 협력 정신을 되살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이 전 총리는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 3국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닌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한중일 30인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공일 전 재무장관은 30인회의 공식 참관기관인 3국협력사무국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무국이 실질적인 정책 입안 및 이행을 위해 3국 정부에 30인회의 제안을 전달하고 30인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이종현 사무총장은 3국 협력과 사무국에 대한 이 전 총리의 지속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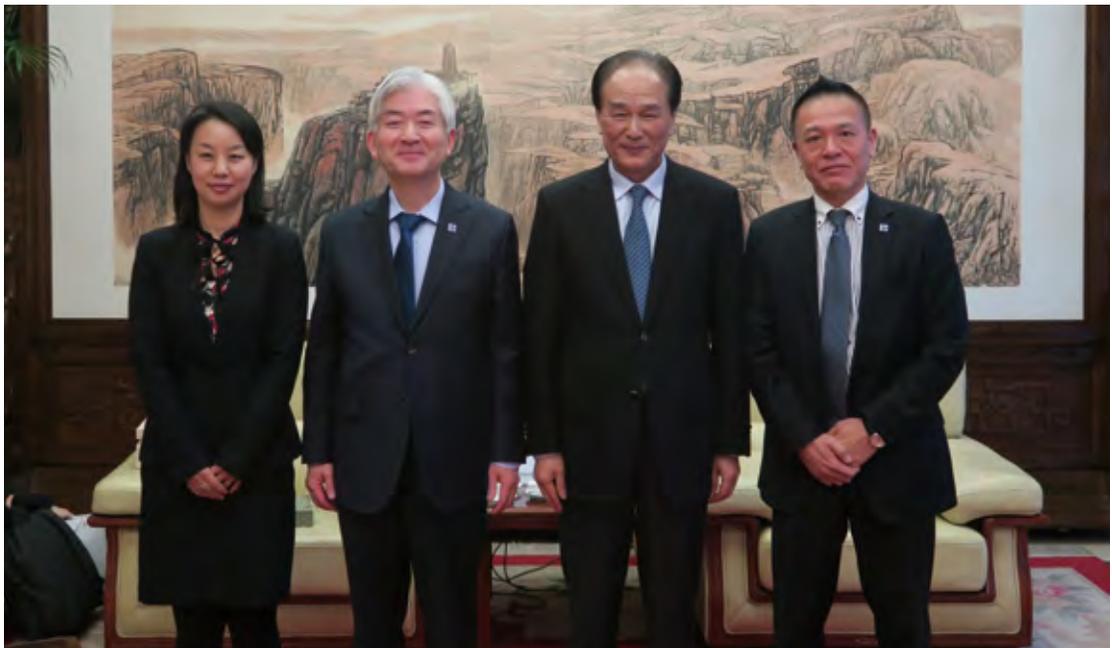
## 조선일보

3국협력사무국 협의이사회는 2017년 11월 8일 조선일보사를 방문하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만났습니다. 두 기관은 2018년 4월 도쿄에서 개최할 2018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IFTC)을 중심으로 3국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조선일보는 2012년부터 파트너 언론사로서 IFTC에 참여해 왔습니다.

방상훈 사장은 한중일이 운명공동체로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3국이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협력사무국이 한중일 협력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사무국과 사무국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종현 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주요 연례사업인 IFTC를 비롯한 사무국의 활동과 3국 협력 촉진을 위한 조선일보의 지원에 감사를 전하며, 이와 관련 언론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 신화통신사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협의이사회는 2018년 2월 8일 중국 신화통신사 차이 밉자오(CAI Mingzhao) 회장을 방문하고 한중일 30인회와 언론 분야에서의 3국 협력에 대한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이종현 사무총장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중일 30인회가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차이 밉자오 회장은 사무국 대표단을 환영하고 신화사의 한일 언론과의 협력 내용과 새로 시작한 일본뉴스 서비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으며, 한국뉴스 서비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차이 회장은 또한 한중일 30인회가 3국 협력 증진을 위해 더욱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하며, 3국협력사무국이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민일보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협의이사회는 2018년 2월 8일 중국 인민일보사를 방문하여 장 지엔싱(ZHANG Jianxing) 부회장과 미디어 분야의 3국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종현 사무총장은 3국 협력, 그리고 사무국의 주요 사업인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IFTC)과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TJEP)을 보도해준 인민일보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다음 IFTC에 인민일보사의 참석을 희망했습니다. 장 지엔싱 부회장은 인민일보에서 주최하는 미디어 협력 포럼, 한중일 방송해설자와의 대담 및 '일대일로' 미디어협력 포럼 등을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장 부회장은 한중일은 세계에서 언론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들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가 가능한 3국의 언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보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닛케이신문

3국협력사무국 협의이사회는 2018년 3월 14일 닛케이신문사를 방문하여 타케오카 린지(TAKEOKA Rinji) 이사와 3국 미디어 협력 촉진 및 3국협력사무국 홍보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종현 사무총장은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닛케이신문사의 지속적 지원과 30인회를 통해 쌓아온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한중일 30인회와 한중일 3국 협력 국제 포럼(IFTC)을 비롯한 다양한 기회를 통해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5. 학계·대학

글로벌 '복잡성'(Complexity)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증가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인의 역할 증진과 이들간 상호교류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은 싱크탱크, 연구소, 교육기관 등 학계·대학 유관기관들이 3국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2017 회계연도에는 동북아 지역 협력의 공동 비전에 실질적인 조연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의 협력 하에 '3국 연구기관 소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사무국은 3국의 대학들을 방문하고 학생 및 학교 대표들과 만나 3국 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대학 및 대학소속 연구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림대학교

#### 글로벌 사회공헌 연구소 특별 강연

3국협력사무국 이종헌 사무총장은 한림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 연구소에서 진행된 개발도상국 글로벌 연구사업인 '씨앗(CIAT)' 연수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씨앗 사업은 코이카(KOICA)에서 실시하는 연수사업으로 한림대학교가 2017년도 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8월부터 10개국에서 파견된 총 18명의 공무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으며 한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해 20여 명의 연수생들이 특별강연에 참여하였습니다.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전 한국은행 총재)은 국제협력과 공헌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이 프로그램을 위해 특별강연을 해 준 이종헌 사무총장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은행 총재 재임 당시 겪었던 한중일 협력에 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종헌 사무총장은 특강을 통해 미래지향적 비전을 바탕으로 이웃국가의 지정학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을 이해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사무총장은 1999년 이래 한중일 3국 정부가 협력 강화를 위해 쌓아온 노력이 지역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주춧돌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자들은 3국간 경제 및 교육 협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3국의 역사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강연에 참여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0월 12일  
장 소: 한국·춘천  
주 최: 한림대학교 글로벌 사회공헌 연구소  
참가자: CIAT 사업에 연계된 10개국 공무원  
주 제: "3국 협력의 역사와 미래 비전"

### 캠퍼스아시아 학생 대상 특별 강연

2017년 12월 6일 3국협력사무국 이종헌 사무총장은 부산에 위치한 동서대학교에서 “한중일 협력과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이 강연은 동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주관했으며, 한국의 동서대학교, 중국의 광둥외어외무대학과 일본의 리쓰메이칸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캠퍼스아시아 콘소시엄의 학생 4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3국 협력의 중요성과 3국협력사무국의 역사, 기능 및 활동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중일의 지정학적 관계와 동북아의 최근 정세에 중점을 두고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유럽과 아세안의 지역협력 경험에 비추어 3국 협력의 전망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국제적인 사고와 지역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3국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학생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행동을 취할 것을 장려했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이종헌 사무총장은 동서대학교 교수진을 만나 동서대학교, 광둥외어외무대학과 리쓰메이칸 대학 간 캠퍼스아시아 콘소시엄의 진행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 개요

일 자:	2017년 12월 6일
장 소:	한국·부산
주 최:	동서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참가자:	동서대학교, 광둥외어외무대학, 리쓰메이칸대학 캠퍼스아시아 콘소시엄 참여 학생들
주 제:	“한중일 협력과 청년의 역할”

## 지린대학

이종헌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한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2018년 7월 10일 지린대학을 방문하여 양 전우(YANG Zhenwu) 당위원회 서기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종헌 사무총장은 캠퍼스아시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린대학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캠퍼스아시아 사업이 교육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3국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임을 강조했습니다. 양 서기는 지린대학의 역사, 발전현황, 연구 분야와 교수진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한일 양국과의 오랜 협력의 전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표단의 이번 방문으로 향후 지린대학과 3국협력사무국의 협력 강화뿐 아니라 인문학,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한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대표단은 이어 동북아연구원 교수진과 회의를 가지고 한중일 교육 협력에 대한 지린대학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두 기관 간의 실질적인 사업과 안건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또한, 제7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리 커창 총리가 제안한 ‘CJK+X’ 또는 ‘CJK+1’ 협력의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 한중일 협력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한 메이 사무차장은 2018년 7월 14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한중일 협력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Trilateral Cooperation and Peace in Northeast Asia)’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상하이외국어대학(SISU)의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TCSC)에서 주최하였습니다.

3국협력사무국 한 메이 사무차장은 개최사를 통해 한중일 3국 협력 촉진을 위한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 및 최근 진행상황을 소개했습니다. 한 사무차장은 한중일 싱크탱크 간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며, 지혜를 모아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면 3국 협력을 긍정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사무차장은 “한중일 협력 및 지역 안정성”을 중심으로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사무차장은 동북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서 3국이 역내 경제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고,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추구하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3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역내 또는 국제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역사적인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메이 사무차장은 또한 상하이외국어대학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상하이외국어대학 당위원회 장 평(JIANG Feng) 서기,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 리안 더구이(LIAN Degui) 집행주임과 만나 한중일 협력연구센터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개요

- 일 자: 2018년 7월 14일
- 장 소: 중국·상하이
- 주 최: 상하이외국어대학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TCSC)
- 주 제: “3국 협력과 동북아의 평화”

# IV

##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수행 및 출판

“협력 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필요 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3자위원회 또는 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위하여 연간 실적 보고서의 제출; 3국 협력 관련 중요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 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및 3국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3국협력사무국 설립협정」 제3조 제1항 라호, 마호

# 1 3국 연구기관 소개

3국협력사무국은 2017 회계연도에 한중일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장의 기고문 편찬 시범사업인 '3국 연구기관 소개(Article Contribution of Research Institutes)' 시리즈를 5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관련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과 3국 협력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사무국 홈페이지의 자원을 다양화함으로써 한중일 협력 관련 연구결과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TCS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고문의 내용은 (1) 연구기관 소개, (2) 한중일 협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연구, (3) 향후 3국 협력의 전망과 3국협력사무국의 가능한 역할 제안 등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18년 2월까지 10개의 한중일 연구기관이 참여했으며 기고문은 3국협력사무국 홈페이지에 한중일영 4개 언어로 게시되었습니다.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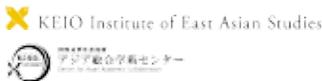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ARI)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AEAS)

## 중국



- 중국인민대학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TCSC)
- 중국외교대학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TCSC)
- 산둥대학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TCSC)
- 대련외국어대학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TCSC)

## 일본



- 게이오대학 동아시아연구소
- 고베대학 아시아총합학술센터

## 2

# 올림픽 경제: 2018 평창, 2020 도쿄, 2022 베이징-장자커우 올림픽 경제성 전망

『올림픽 경제(Olympic Economy)』는 한중일 3개 언어로 출간되었으며 3국간 경제 관계 및 한중일 거시경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관기관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무국의 영문 출판물인 『2017 한중일 경제보고서』의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한중일 3국의 연이은 올림픽 개최를 맞아 3국 정상회의, 경제통상장관회의, 스포츠장관회의 등에서 3국간 올림픽 협력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취지를 이어받아 『올림픽 경제』는 3국의 거시경제와 올림픽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TCS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경제개혁학회 부회장 겸 베이징-장자커우 동계올림픽 연구소장 천 지엔(CHEN Jian) 교수가 주저자로 참여했으며, 공동 저자로는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실장,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 일본경제연구센터 사이토 준(SAITO Jun) 수석 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 3

#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3국협력사무국은 대중들의 한중일 통계자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국 공식 홈페이지에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Interactive Data Visualization)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사무국 통계 웹사이트의 방문자들은 3국의 경제, 사회, 환경 현황과 발전 추이에 관한 주요 데이터와 수치를 상호적인 방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툴은 또한 3국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다양한 통계자료를 담고 협의체 관련 통계사업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TCS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20주년 기념책자 『한중일 환경협력 20주년 1999~2018』



보다 자세한 정보는  
[TCS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한국 환경부, 중국 생태환경부, 일본 환경성의 지정 및 지원으로 중-아세안 환경보호협력센터와 함께 『한중일 환경협력 20주년 1999~2018 (20th Anniversary-Tripartite Environmental Cooperation 1999~2018)』 기념책자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의 개요, 발자취, 업적, 향후 전망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의 발간 목적은 환경장관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하고, 3국의 환경협력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동북아와 세계를 향한 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 책자는 한중일영 4개 언어로 출간되었으며 사무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5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Trilateral Common Vocabulary Dictionary: TCVD)』은 3국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한자 및 언어학자들간의 교류와 공동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사무국의 사업입니다. 이 어휘집은 3국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공통 어휘 658개를 수록했으며, 한중일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 하에 한중일 3개 언어로 출간되었습니다.

2018년 8월 약 1년 반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이 출간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이 어휘집을 한중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중일 3국에서 출판기념회 및 홍보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 출판기념회는 2018년 8월 16일 서울에 위치한 TCS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고위급 정부인사, 언론사 대표 및 3국협력 관계자들이 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어휘집 편찬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3국 협력 공로상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념회를 마친 후에는 서예와 한국 전통음악이 어우러진 협동 공연이 이어졌으며 3국의 협력을 주제로 한 한시(漢詩)가 발표되었습니다.

K 項目 [항목 hangmok]	J 項目 [こうもく koumoku]	C 項目 [xiàngmù]
<b>1 어떤 것을 개별성이 있는 작은 것들로 나눈 하나하나.</b> <span style="float: right;">K J C</span>		
① 두루뭉술 뭉뚱그리지 말고 항목별로 나누어 논의하자. ② 상대방의 요구는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항목화하다	① 曖昧にまとめないで項目別に分けて議論しよう。 ② 相手側の要求は10個の項目から成っている。 ③ 項目化する	① 我们不要说得这么笼统模糊, 按具体项目细谈吧。 ② 对方的要求分为十个项目。 ③ 项目化
<b>2 프로젝트, 사업, 과제.</b> <span style="float: right;">C</span>		
①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 ② (회사는 개발 프로젝트를 나에게 맡겼다.)	① (不動産建設プロジェクト) ② (会社は開発プロジェクトを私に任せた。)	① 房地产建设项目 ② 公司让我负责一个开发项目。

뒤이어 중국과 일본에서 홍보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5일 3국협력사무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국제교류기금 베이징문화센터와 함께 홍보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중 한·일 대사관, 언론사, 중국문자박물관의 대표들을 포함한 5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롱 홍준(RONG Hongjun) 문화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중일어의 서예 및 예술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서예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서예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중국문자박물관과 함께 부대행사로 '한중일 한자문화전' 및 TCVD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여 한자의 역사를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목판인쇄 체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18년 8월 27일에는 일본 교토에서 일본간지적성검사협회와 공동으로 홍보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쓰쿠바대학 사토 코에츠(SATO Koetsu) 교수를 초청하여 3국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한자어의 유사점과 차이점, 어원 및 변화과정을 소개하는 공개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자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학생, 학자, 언론사, 간지 박물관 방문객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TCVD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요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 출판기념회**

**일 시:** 2018년 8월 16일  
**장 소:** 한국·서울  
**참 가 자:** 한중일 3국의 정부 인사, 언론사 대표, 관계자  
**프로그램:** 3국 협력 공로상 시상식, 한국 전통음악·서예 합동공연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 출판기념회 홍보행사**

<b>일 시:</b> 2018년 8월 25일	2018년 8월 27일
<b>장 소:</b> 중국·베이징	일본·교토
<b>주 최:</b> 일본국제교류기금 베이징문화센터	일본간지적성검사협회
<b>프로그램:</b> 공개강연, 전시회, 목판인쇄 체험	공개강연

6 **한중일 상호학위인정 공동연구사업 전문가협의회**

한중일 상호학위인정 공동연구사업(CJK Joint Research on Mutual Recognition of Degrees)은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의 후속 사업으로 기획되었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이 사업 이행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지정되어 사업 모델과 내용 개발을 위해 3국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왔습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공동연구사업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해 한중일 고등교육기관 간 복수학위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캠퍼스아시아 사업 담당교수들과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회의는 전문가, 교육부 대표, 고등교육평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3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공동연구사업은 2018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한중일 3국에서 각각 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그룹위원들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개  
요

	1차	2차	3차
<b>일 시:</b>	2018년 4월 27일	2018년 6월 8일	2018년 8월 1일
<b>장 소:</b>	한국·서울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b>주 최:</b>	한국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베이징대학 국제학대학원	일본 문부과학성,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b>참가자:</b>	한중일 교육부 대표, 캠퍼스아시아 복수학위사업 담당교수		
<b>주 제:</b>	"한중일 상호 학위 인정과 관련한 공동복수학위 및 기타 사항"		

## 7

###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도록



보다 자세한 정보는  
[TCS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도록(CJK Olympic Road 2018 Photo Booklet)』은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및 토크콘서트 포럼’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연합뉴스, 신화통신사의 지원 하에 발간된 이 도록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중일 국가대표 선수단, 응원단 및 각국 지도자들의 열정과 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8

### 한중일 삼국일칠 옷칠예술 전시 도록



보다 자세한 정보는  
[TCS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국협력사무국은 2018년 8월 약 2주간 개최된 한중일 삼국일칠 옷칠예술 아티스트토크 & 전시회 기간 중 한중일의 예술작품을 담은 사진집 『한중일 삼국일칠 옷칠예술 전시 도록(Trilateral Artist Talk and Exhibition on Lacquer Art Photo Booklet)』을 배포했습니다. 도록 안에는 14점의 회화와 14점의 조각을 포함하여 총 28점의 옷칠예술 작품이 소개되었습니다. 2주간의 전시회가 끝나고 작품들은 모두 작가들에게 반환되었지만, 전시 도록은 한중일 옷칠예술의 유사성과 개성을 보여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 한눈에 보는 FY2017 3국협력사무국 활동

## 정부간 협의체

외 무	▪ 제20차 아세안+3 정상회의 ▪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	17 17
재난 관리	▪ 제5차 한중일 재난관리 기관장회의 ▪ 제10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	19 20
무역과 투자	▪ 제3차 한중일 전자상거래협력 공동연구 실무그룹회의 ▪ 제16회 한중일 경제·기술교류회의	21 22
지적재산권(IPR)	▪ 제17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 제5회 한중일 지적재산 유저 심포지엄	23 24
정보통신기술(ICT)	▪ 제6차 한일중 ICT 장관회의	25
환경 보호	▪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후속실무회의 ▪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국장급 및 실무자급 회의 ▪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청년포럼	26 27 27 29
보건·복지	▪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30
산림	▪ 제5차 한중일 산림분야 국장급회의	32
수자원	▪ 제3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 ▪ 제3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 준비 과장급 회의	33 34
교통·물류	▪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34
문 화	▪ 제10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 동아시아 문화도시	36 37
교육·청소년 교류	▪ 제2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 제6차 한중일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	38 39

## 유관기관

▪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	68
▪ 중-아세안센터	69
▪ 한-아세안센터	69
▪ 주한 EU 대표부	70
▪ 주아세안 상주대표위원회	70
▪ 유엔글로벌콤팩트	71
▪ 한국	72
▪ 중국	73
▪ 일본	73
▪ 중국 구이저우성	74
▪ 중국 지린성	75
▪ 중앙일보	77
▪ 조선일보	78
▪ 신화통신사	78
▪ 인민일보	79
▪ 닛케이신문	79
▪ 한림대학교	80
▪ 동서대학교	81
▪ 지린대학	81
▪ 상하이외국어대학	82

### 지역협력기구 및 국제기구

### 주요 부처, 공공기관 및 기관

### 지방정부

### 언론 및 홍보

### 학계·대학

## 협력사업

정무	▪ 제2차 한중일 3국 싱크탱크 네트워크 대표자 회의	42
	▪ 제9차 동북아협력 국제심포지엄	42
	▪ 2017 아시아 경제공동체 포럼	43
	▪ 보아오 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	44
	▪ 2018 한중일 신진학자 교류 협력	44
	▪ 지역 협력에 관한 지역간 대화: '3+1' 협력체제와 한중일 협력 전망	45
경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	▪ 제3회 한중일 산업박람회	47
	▪ 제1차 세계 세관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총회	47
	▪ 한중일 상협회 협력 및 신중산업 경제무역투자협력 정상회의	48
	▪ 제10회 APEC 중소기업 기술교류 및 전시회	48
	▪ 제6차 한중일 비즈니스 세미나 및 교류회	49
사회·문화	▪ 로쿠스 디자인 포럼 출판 기념회	51
	▪ 2017 '일대일로' 미디어 협력 포럼	51
	▪ 2017 중국(안양)국제한자대회	52
	▪ 2017·2018 한일중 3국 청년모의정상회의	52
	▪ 제13회 한중일 문화교류포럼	53
	▪ '동아시아의 다채로운 발전 및 한중일의 공헌' 국제 심포지엄	54
	▪ 2017 한중일 기자 합동취재 프로그램	54
	▪ 제7회 한중일 캠퍼스 하모니	55
	▪ 한중일 명기자 베이징-충리 3자 미디어 포럼	55
	▪ 제1회 따오기 국제포럼	56
	▪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및 토크콘서트 포럼	57
	▪ 2018 한중일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	58
	▪ 2018 한일중 대학생 외교캠프	59
	▪ 2018 청년대사 프로그램	60
	▪ 한중일 삼국일철 옷칠예술 아티스트토크 & 전시회	60
	▪ 2018 한중일 어린이 동화교류	62
▪ 캠퍼스아시아 베이징-서울-도쿄(베세토) 동문 역량강화 워크숍	63	
공동 사업	▪ 2018 한중일 3국 협력 국제포럼	64
	▪ 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 아시아의 평화 재정립	66

## 데이터베이스, 연구 및 출판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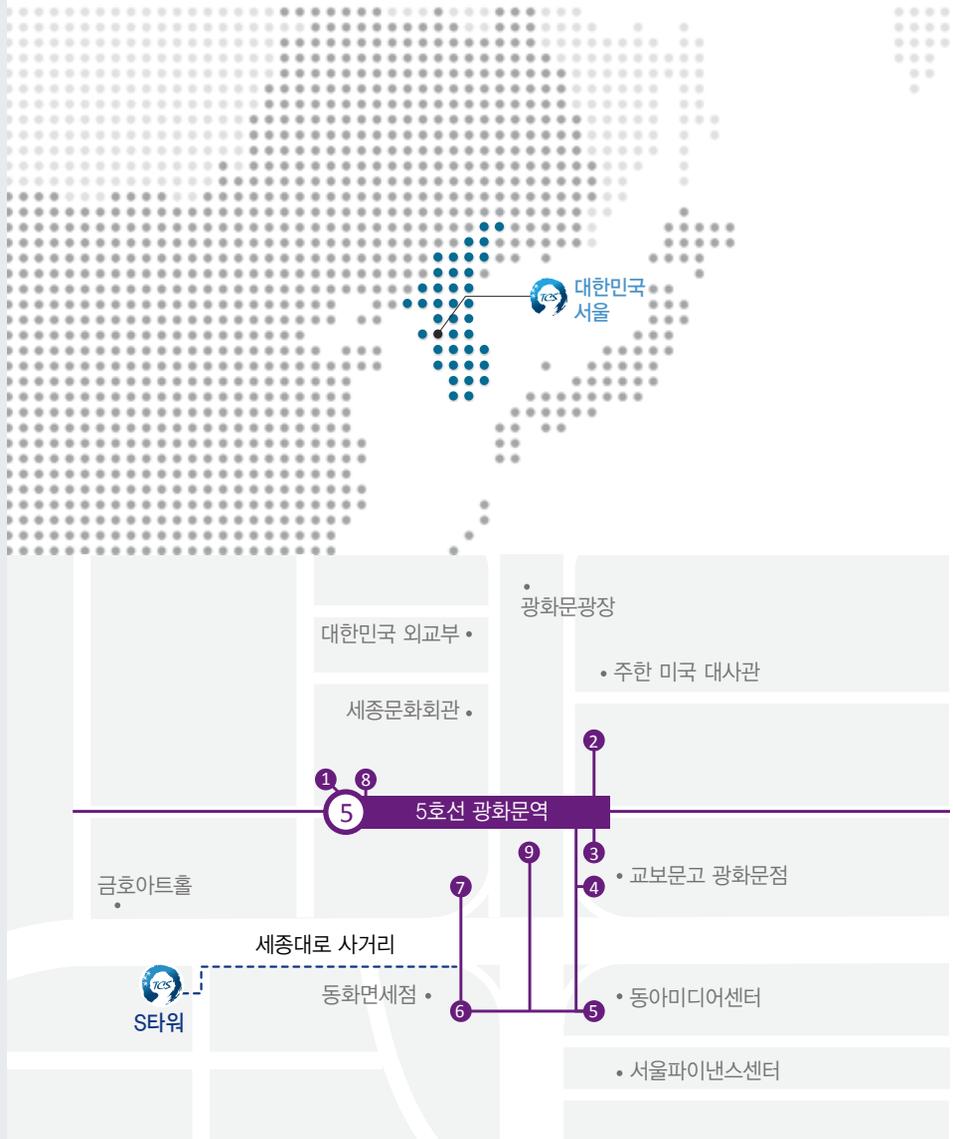
▪ 3국 연구기관 소개	84
▪ 올림픽 경제: 2018 평창, 2020 도쿄, 2022 베이징-장자커우 올림픽 경제성 전망	85
▪ 인터랙티브 데이터 시각화	85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20주년 기념책자 『한중일 환경협력 20주년 1999~2018』	86
▪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	86
▪ 한중일 상호학위인정 공동연구사업	88
▪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도록	89
▪ 한중일 삼국일철 옷칠예술 전시 도록	89

# 영문 약어

ACC	ASEAN-China Centre	EAF	The East Asia Foundation
ACD	Asia Cooperation Dialogue	ERASMUS	European Community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AEAS	Academy of East Asian Studies	EU	European Union
AI	Artificial Intelligence	FA	Forestry Agency of Japan
AKC	ASEAN-Korea Centre	FKI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TA	Free Trade Agreement
APEC	APEC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Y	Fiscal Year
SMETC	Technology Conference and Fair	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China; People's Government of Liaoning Province
APT	ASEAN Plus Three	GrasPP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ARI	Asiatic Research Institute	GSII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GSS	General Services Staff
ASEM	Asia-Europe Meeting	HEEC	Higher Education Evaluation Center
B&R	Belt and Road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BESETO	Beijing, Seoul, and Tokyo	IEWS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BFA	Boao Forum for Asia	IFTC	International Forum for Trilateral Cooperation
CAICT	China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oT	Internet of Things
CAMPUS	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Asia	IP	Intellectual Property
Asia	University Students in Asia	IP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O	Cabinet Office of Japan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CCEA	Culture City of East Asia	JAP	Joint Action Plan
CCOIC	China Chamber of International Commerce	JAPIT	The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Japan
CCRNC	Center for China's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JED	Joint Emergency Drill
CDGDC	China Academic Degrees and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CEEC	Centre for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ommunications	JFIR	Japan Forum on International Relations
CFAU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JPO	Japan Patent Office
CIAT	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	KCFA	Korea-China Friendship Association
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KCU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CJK	China-Japan-ROK	KFS	Korea Forestry Service
CNCCC	China National Commission for Wellbeing of Children	KEI	Kyushu Economy International
CNIP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of China, former SIPO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NS	Convention Nuclear Safety	KIPO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CPAFFC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	KITA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CPR	The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to ASEAN	KJEA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KNDA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DG	Director-General	KNPA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DGM	Directors-General Meeting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ao PDR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DSG(s)	Deputy Secretary-General(s)	MBC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EABC	East Asia Business Council	MCA	Ministry of Civil Affairs of China
EAEC	East Asia Economic Community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OK
		MCT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of China
		ME	Ministry of Environment of the ROK
		ME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China, former MEP

MEP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f China	SBC	SME Business Corporation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of Japan	SBS	Seoul Broadcasting System
MEXT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of Japan	SCC	Supply Chain Connectivity
MHLW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of Japan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MIC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of Japan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IIT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f China	SFAI	Sichuan Fine Arts Institute
M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of Japan	SFDRR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MOC	Memorandum of Cooperation	SG	Secretary-General
MOE	Ministry of Education; Ministry of the Environment of Japan	SIPO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China
MOF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the ROK	SIS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MOF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ISU	Shanghai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MOFCOM	Ministry of Commerce of China	SME(s)	Small and Mid-size Enterprise(s)
MOHW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ROK	SMRJ	SME Support Japan
MOIS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of the ROK	SNU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OLI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OK	TBNR	Trilateral Business Seminar & Networking Reception
MOT	Ministry of Transport of China	TCF	Trilateral Cooperation Fund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ROK	TCMM	Trilateral Culture Ministers' Meeting
MSI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of the ROK	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MSMEs	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CSC	Trilateral Cooperation Studies Center
MWR	Ministry of Water Resources of China	TCVD	Trilateral Common Vocabulary Dictionary
NATF	Northeast Asia Trilateral Forum	TEDMM	Trilateral Education Ministers' Meeting
NEAL-NET	Northeast Asia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Network	TEMM	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
NFGA	National Forestry and Grassland Administration	TEPCO	Tokyo Electric Power Company
NHFPC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of China	THMM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NIAD-QE	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Quality Enhancement of Higher Education	TJAP	Tripartite Joint Action Plan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NIYE	National institute for Youth Education	TJEP	Trilateral Journalist Exchange Program
NNSA/MEP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of China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NRA	Nuclear Regulation Authority	TRIPO	Trilateral IP Offices
NSSC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RM	Top Regulators Meeting
NTCT	Network of Trilateral Cooperation Think-Tanks	TYS	Trilateral Youth Summit
OPUA	Okinawa Prefectural University of Arts	UCC	User Created Contents
OSS	Open Source Software	UIA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PS	Professional Staff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UNGC	UN Global Compact
ROK	Republic of Korea	US	United States of America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WGEP	Working Group on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WGHRD	Working Group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WGOIS	Working Group on Online Information Sharing
		WHO-WPRO	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 Pacific Regional Office
		WLM	Working Level Meeting
		YAP	Young Ambassador Program

# 3국협력사무국 약도



##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 2017 회계연도 연례보고서

2019년 2월 인쇄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20층 03185

T +82-2-733-4700 F +82-2-733-2525 E tcs@tcs-asia.org

편 집 손하예슬, 김희진, 로우 링, 사사오 노조미

검 토 정광용, 고광덕, 차오 원, 나가후치 켄지

감 수 이종헌, 야마모토 야스시, 한 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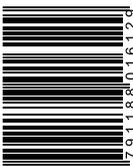
번역감수 정광용, 손하예슬

Copyright © 2018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이 책의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9001940)

비매출/무료



9 791188 016129  
ISBN 979-11-88016-12-9

[www.tcs-asia.org](http://www.tcs-asia.org)

 한일중 3국협력사무국

 日中韓三國協力事務局

 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